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1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7호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조계종, 종교인과세 중앙서 업무 대행

조세협력 비용 · 시간 절약… 사찰 행정력 뒷받침
세무조사도 중앙종무기관 담당, 20일 최종 결정

종교인과세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이 중앙서 급여를 집행하고, 세무신고를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세협력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력이 미흡한 사찰이 직접적인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조계종은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2017년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종교인(승려) 소득세 신고 관련 조계종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서 조계종 총무원은 진행경과와 종단 기본입장을 보고하고, 몇 가지 수정을 거쳐 14일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조계종 재무부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 대상은 직무수행비(정기적)와 기타(부정기적)소득으로 나뉜다. 직무수행비에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별도 법인종사자 제외) · 교구본말사 주지 및 국과장급 직무 · 승가대학 및 대학원 임명직무 · 사찰 부속기관 직무 등이 포함된다. 또한 타종단, 타교단 종교인도 해당 기관에 소속돼 있는 경우 해당된다. 부정기적 소득에는 법사비 · 강의비 · 출연료 · 원고료 등이며, 종단이 기준금액 결정 후 고지할 예정이다.

종단이 마련한 직무수행비 책정 기준액은 사찰 결산등급별로 나뉜다. 결산 20억 이상 1등급 사찰은 주지급 300만원 · 국장급 200만원선으로 정했으며, 이는 기준액일 뿐 사찰서 종단에 보고하는 대로 세무서에 신고된다. 부정기적 소득은 종사(명덕) 이상 기준금액 50만원, 대덕(혜덕) 이하 30만원, 사미 · 사미니 10만원이다. 지역과 사찰 형편에 따라 교통비 등을 추가해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불교대학 스님 강사료는 종단 강사료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기재부가 비과세 방침을 결정한 '종교활동비'와 관련해 조계종은 수행지원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판단했다. 이는 성직을 위해 성직자가 되는 타종교와 달리 불교는 출가 자체가 목적인 데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는 승려 수행생활 유지에 필요한 부전스님 기도비, 49재, 예수재, 해제비, 거마비, 객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용채와 목욕비 · 병원진료비 등 일상생활 지원비 역시 마찬가지다. 이외에 방장 · 조실 · 회주 · 선원장 등 대중생활 유지를 위해 소임자에게 지급되는 비용과 승려 기본교육기관서 수행 중인 승려에게 지급되는 교육비용 등도 비과세 항목이다.

세간에서 문제 삼는 비과세 종교활동비는 사실상 '판공비' 개념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종무집행 · 직무역할에 따른 비용에 대해 사찰명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개인 계좌로 지급시 직무수행비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장비는 실비로 정산하고, 영수증 증빙은 필수다.

이 같은 종교인과세 적용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조계종은 사찰과 기관에서 스님에게 바로 비용을 지급하는 현행방식 대신 중앙종무기관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찰이 소임자 법명 및 속명, 주민번호, 주소, 계좌, 지출요청 및 사유 등을 종단에 제출하면 종단이 세금계산 후 원청징수를 하고, 세무신고까지 마치는 방식이다. 이는 행정력이 미흡한 사찰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종단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고, 필요 증빙서류를 조사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실무인력 충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매년 예상 발생비용은 2억 원 내외로 예상되며, 내년도 1000개 사찰, 2000명의 스님들이 신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충기 재무팀장은 "사찰의 조세협력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중앙집중식 처리방식을 택했다. 세무신고와 민원안내까지 일선 사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회의를 통해 종교인과세 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교구본사 재무국장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교육을, 16~17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전국단위 교육을 실시한다. 19일에는 서울서 서울 · 경기권 희망사찰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20일경 종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태고종은 종교인과세 준비를 위해 종단 차원의 지침서를 제작, 각 교구종무원에 배포해 말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천태종은 종교인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스님이 2~3명을 제외하고 전무한 것으로 판단,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각종 역시 종교인과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 차례차례 적용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직무수행비 · 기타소득 구분
수행생활 위한 비용은 제외
판공비 체크카드 사용 원칙

각 종단 과세 교육 '잰걸음'
태고종 지침서 제작 계획
진각종도 종단 방침 구상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종단불사 총도감 현고 스님
설정 스님 13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종단불사를 총괄할 총도감에 현고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광주 원각사 주지 현고 스님을 종단불사 총도감으로 임명했다.

총도감은 10.27법난기념관, 세종 및 위례신도시 불사 등 종단의 굵직한 불사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조계종은 이른 시일 내 조직 개편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정 스님은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추진위원회(성역화추진위) 집행위원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및 불교사회연구소장 일감 스님에게도 임명장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어서와 참선은 처음이지? 주한 미군 군종장교들이 12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템플라이프를 체험했다.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고 한미 양국 군종장교의 업무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주한 미군 군종장교들은 참선, 다도 등을 열정적으로 체험했다. 익숙하지 않은 가부좌와 참선을 하는 주한 미군 군종장교들의 모습에서 사뭇 진지함이 느껴진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 제공=봉은사

'붓다로 살자' 실천운동 본격화
조계종 포교원, 새해부터 전개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신행혁신 실천도량에서 신행혁신 현장 적용을 실시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지난 11월 선정된 신행혁신 실천도량을 중심으로 새해부터 신행혁신 실천운동을 시범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행혁신 실천도량은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제2차 신행혁신 대중공사에서 선정된 조계종 제16교구 말사인 대원사, 영주포교당, 관음사, 석수암이다. 포교원은 실천도량 4곳에서 사찰별 대중공사 등을 통해 신행혁신운동 시범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신행혁신 도량 4곳서 진행
2018년 15곳 추가 선정
사찰 수행일지 보급 · 점검

사찰별 대중공사에서는 사찰임원 대상 교육 및 사찰 내 신행혁신 결의가 추진되며, 사찰 상황에 맞는 수행일지를 보급도 진행된다. 안거 입재에 맞춰 신행혁신 실천도량 입재식이 진행되며, 안거 기간 중 신행혁신을 내용으로 특별법회도 열린다. 이와 함께 동안거 기간 진행상황을 포교원 측에서 전화 및 직접 방문으로 점검한다. 동안거 해제일을 기해 신행혁신 실천도량에서는 사찰별 신행혁신 운동 회향식이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 측은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사찰 15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신행혁신 모범 진행 사찰 및 수행일지를 잘 활용한 개인을 추천받아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시방세계 A5
조계사 성역화불사
십만팔천염주 꿰기 현장

강의실중계 A7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불교의 관점에서 본 죽음'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www.hyunbulshop.com

조계종 사서실장에 진우 스님 임명

교육국장엔 응관 스님



조계종 새 사서실장에 前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2월 11일 신임 사서실장에 진우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에 지행 · 일만 스님을 임명했다. 설정 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알아야 한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사부대중과 국민에게 겸손, 친절, 봉사, 헌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서실장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다. 신흥사 · 용흥사 주지 및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하고, 고불총림선원 · 용흥사 몽성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상임감찰 지행 스님은 원장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했다. 법주사 승가대학 및 동국대 경주캠퍼스 ·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청도 대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상임감찰 일만 스님은 원영 스님을 은사로 2000년 수계했다. 범어사 승가대학 및 해인총림 율학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법주사 총지선원 · 망월사 천중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2일 신임 교육국장 응관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응관 스님은 해인사를 재적 본사로, 본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08년 前총무원장 지관 스님 사서를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 경북 성주 심원사 주지로 전법활동을 해왔다.

윤호섭 · 신성민 기자



큰스님 되기 위한 관문 한 단계 높은 법계를 받아 태고종단 발전과 한국불교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자 스님들이 면접에 뛰어들었다.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12월 1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서 제16차 법계고시를 시행했다. 선덕과 중덕 법계는 필기시험과 면접, 대덕과 종덕 법계는 '종단 발전 방향' 주제 리포트 심사 및 면접, 종사 법계는 서류전형으로 진행됐다.
이번 법계고시는 종사 21명, 종덕 22명, 대덕 59명, 중덕 23명, 선덕 8명 등 133명이 응시했으며, 고시위원장 원명 스님과 고시위원 정선 · 법정 · 석천 · 혜암 스님이 심사를 맡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방송 내년 예산 405억원 확정

13일 이사회서 의결… 미디어센터 건립 등 포함

BBS불교방송의 내년도 예산이 405억 원으로 확정됐다.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이사회는 12월 13일 제101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확정과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BBS불교방송 이사회는 양질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필요한 내년 예산안 405억원을 승인했다. 내년 예산에는 서울 상암동 글로벌 미디어센터 건립과 내년 5월로 예정하고 있는 제주 불교방송 설립 예산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BBS불교방송 이사회는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의 후임 이사로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을 선임하고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의 이사 연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21명 가운데 진각종 총무부장 호당 정사, 엄상호, 이수덕, 손준석, 구형선 이사,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연말 불자들 기부 열기 '뜨겁다'

불교계 각 기부처
후원금 모연 청신호



11월 23일 아름다운동행이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쪽방촌에서 진행한 연탄 배달봉사 모습. 아름다운동행 측은 아이연탄맨을 비롯해 후원 캠페인에 대한 불자들의 후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불황에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불자들의 기부 열기는 뜨거웠다. 불교계 공공모금 캠페인과 공익 후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먼저 조계종 중앙신도회(신도회장 이기흥) 산하 날마다좋은날이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캠페인 모연액은 2013년 모금캠페인 시작 이후 최고 모연금액을 달성했다.

날마다좋은날에 따르면 2017년 10월 31일까지 모금된 금액은 2억1865만원으로 2013년 출범 당시 1억1880만원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모금액인 2억760만원을 10월에 넘어선 것으로 기부 및 후원이 늘어나는 11월과 12월을 합산하면 훨씬 높은 금액이 모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날마다좋은날 측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거리모금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부터 300여 사찰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사찰과 교구 · 사찰신도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날마다좋은날은 불자들의 동참에 힘입어 모금액 배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모금액 대부분을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 노인, 빈곤가정 가장, 저소득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11월 3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은 상태로 12월 19일 지원대상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5일 지원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행복바라미 역대 최고 모연액
아름다운동행 5% 가량 증가
생 명 나 눔 기증·후원 이어져

불교계 대표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은 2017년 약 56억 원의 후원금이 모연됐다. 12월 후원액 집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대비 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미란 아름다운동행 팀장은 "올해는 스님들에 비해 일반 재가불자들의 기부가 많았다"며 "지난해 대비 쌀 등 현물 후원이 다소 줄었는데, 이는 일반 기부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동행은 이 같은 불자들의 후원 증가에 따라 감사선물 증정과 초청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계 장기기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도 지난해 7억5000여만 원에서 약 20% 증가한 9억여 원의 후원금이 답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따르면 환자 치료비 후원 및 일반 후원에서 큰 증가가 있었으며, 신규 장기기증 및 후원회원도 300여 명이 늘어났다.

권수진 생명나눔실천본부 팀장은 "매달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통한 환자 치료비 후원 모금, 연말 이웃돕기 캠페인, 후원신청서 발송, 기업 후원 증대 등의 노력이 있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이웃들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나누겠다는 마음들이 모인 결과로 본다. 이 같은 많은 이들의 정성이 잘 전해지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전국사찰수호聯, 종단협 산하단체 된다

이사회서 산하단체 구성 결의… 군소종단 지원 기대

사찰환경 침해 대응코자
범불교적 결집 눈길 끌어
새해 예산 13억8840만원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사찰수행환경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범불교적 대응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전국전통사찰수호연합회의 산하 단체 가입을 결의했다.

이날 종단협은 도시개발로 인해 수행환경이 침해당하고, 불교문화재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들을 돕고자 전국전통사찰수호연합회(회장 청호, 수도사 주지)를 산하 단체로 등록하기로 했다.

회장 설정 스님은 "범종단적으로 삼보정재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사찰수호연합회의 경우 불법수호를 위해 힘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케이블카 개발 등으로 사찰 환경이 침해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분쟁에 종단협을 대신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산하단체 가입 요건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종단협의 이번 전국전통사찰수호연합회의 산하단체 구성으로 향후 사찰수행환경 침해문제 대응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종단협 소속 종단 중 행정력이 떨어지는 군소종단에 해당 사안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단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당연직 회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부회장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아울러 신임 상임이사로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중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정선 스님을 변경 승인했다.

이밖에 2018년 신년하례회를 1월 26일 오후 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하며, 새해 첫 총회 및 이사회는 2월 27일 개최키로 결의했다. 4월 중순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등을 열기로 했으며, 새해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13억884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종단협은 천태종 前총무부장 월도 스님의 후임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후보자 과열양상으로 인해 2018년 신년하례회 직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2018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

장학위 12월 6일 확정… 20명에 1억여 원 지원

조계종 내년도 종단 장학승으로 20명이 선정됐다.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는 "12월 6일 '제4기 장학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불기2562(2018)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을 확정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해외 4명, 국내 11명, 사찰승가대학원 5명으로 총 20명이다. 신규 장학승에게는 해외 연간 5,200만원, 국내 연간 5,850만원, 사찰승가대학원 연간 1,000만원으로 연간 총 1억 2,050만원이 지원된다.

선발된 종단 장학승에게는 해당 과정 수료시(3년 이내)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금은 각 학교의 등록금과 연구비, 생활비 등을 감안하여 매 학기별 지급한다.

2018년도 장학승 선발에는 해외 6명, 국내 31명, 사찰승가대학원 10명 등 총 47명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장학위는 종단이 정한 전공 분야, 수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성적, 종단기여 가능성, 추천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장학승을 선발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2018년도 선발의 특징은 국 · 내외 장학승은 석 · 박사과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학업에 대한 열의와 전문연구자로서의 연구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면서 "사찰승가대학원의 경우 승가대학원 활성화를 위해 심화과정인 연구과정생을 선발해 연구와 수행 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행복청, 세종 개신교계 억지주장 반박

"면적 확대는 조계종 공급 이전… 특혜 없다"

세종시 종교용지에 들어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일부 개신교 단체들의 억지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전면 반박에 나섰다.

행복청은 12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용지 허가 과정서 조계종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세종 개신교 단체 연대인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 주장을 반박했다.

행복청은 "새로운 국가 행정중심도시로서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들로부터 대형 종교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대형종교용지를 5개소 확보했고, 이 중 개신교, 천주교, 불교 조계종, 불교 천태종 총 4개소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1만6000㎡ 이상의 대형종교용지는 특정 종교만의 공간이 아닌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다"면서 "특화종교시설로 지정해 도시특화전문위원을 두고,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자문단 자문을 거쳐 도시의 대표적 건축물로 건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복청은 종교용지를 조계종이

불교 · 천주교 · 개신교에 공급
시민 · 관광객 위한 열린 공간
자문 거쳐 대표 건축물 계획
"타 대형종교용지 반영도 유사"

매입하는 과정에 특혜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S-1생활권의 조계종 용지는 2013년 4월, 3-3생활권과 5-1생활권 1만㎡ 대형종교용지 2곳과 함께 대형종교용지로 계획됐다. 이후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 이전에 종교용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소유용지를 LH에 양도한 22개 용지 소유자(종교용지 협의양도인)에 대해 종교용지를 우선 공급하고자 검토했다. 이에 S-1생활권에 위치한 해당 종교용지는 기존 석불사 종교용지를 협의 양도한 조계종에서만 매입 신청했고, 2015년 10월 1만6000㎡ 규모의 대형종교용지 3곳을 도시의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특화종교용지로 결정하면서 4-1생활권, 6-4생활권의 대형종교용지와 함께 S-1생활권 해당 용지 규모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주변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계획한 것은 대형종교용지 주변 방문수요 등에 맞게 바로 인접한 지역에 관련 시설들을 계획한 것으로 해당 용지만의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복청은 또한 세종 개신교계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밝혔다. 먼저 최초 280평을 1만8000평으로 64배 확대, 특정종교에 편법으로 공급했다는 개신교계 주장에 "1만㎡로 면적 확대는 조계종에 공급 이전이며, 이후 특화종교용지로 지정돼 1만6,000㎡로 면적이 증가하면서 2016년 6월 변경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화종교용지를 부당하게 적용해 28m 불상 등 각종 조형물 설치가 가능한 건축 기반 마련 특혜 주장에는 "경관적인 측면과 공공성이 가미된 시설 도입을 위해 오히려 규제가 추가되며,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자문단 자문과정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 상징물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차장 · 근린시설 등 8000평을 지원하고, 세종시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타 대형종교용지 인근에도 유사하게 반영됐고, 민간에 매각 예정부지로 세종시 관리 및 운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점에 대해 "주변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해당용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경우 과도한 용적률(200% 이하)로 개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준원 금강대 총장 돌연 사직서 제출

취임 20일 만에… 건강문제로



지난달 취임한 이준원 금강대 총장〈사진〉이 12월 6일 취임 20여 일 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관심이 쏠린다.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총장직 수행에 어려움을 표했다.

금강대 모 교수는 "최근 총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운영에 대한 중압감을 상당히 느꼈다. 특히 과거 심장 수술을 한 병력이 있고, 최근 당 · 고혈압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들었다"면서 "고등학교장과 다른 대학총장의 무게에 따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준원 총장은 본지 전화통화에서 "현재 병원 입원 중이다. 통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금강대 법인사무처장 월장 스님은 "최근 이 총장님 건강히 급격히 나빠졌다.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강문제로 이 총장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최근 위기 극복을 다짐한 금강대가 다시 난관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호섭 기자**

국토부, 논란의 도로표지판 개선키로

'도로표지 개선방안 연구' 추진… 선진국 사례 참조 계획

사찰과 문화재를 비롯해 세계문화유산 등 전통문화 표기를 고속도로표지판서 삭제키로 해 논란을 빚었던 국토부가 12월 8일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 고속도로표지판 표기 확대, 일부 크기가 작은 글자 판독성 강화, 영문 표기 통일 등 지속적인 개선사항을 받아들여 이용자 중심으로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적용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관광지 현황 조사 분석 및 선진국 사례 참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민원을 이유로 고속도로표지판 내 전통사찰 안내를 삭제 추진해 불교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예규의 관리지침에 지역명소나 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을 안내하는 표지는 허용치 않음을 들어 표지판 철거에 나섰다.

불교계는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과 세계유산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는 국가책무에도 맞지 않으며, 안내를 적극 권장하는 해외 등의 사례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종차별금지, 이주민정책 핵심"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12월 12일 주장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가 차별 없는 세상, 이주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이주민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 종단 이주 · 인권협의회가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두고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명을 내고 "이주민에 대한 비하, 멸시, 차별이 일상생활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제재는커녕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국내 이주민 정책에 대한 UN의 권고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권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단별 입장발표와 성명 발표가 끝난 뒤 협의회는 인권위원회를 찾아 조영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주여성이나 아동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일 것이다. 특히 귀화할 때 3000만원이 든다는 점은 놀랍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한국사회는 난민에게 좁은 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 내면에는 민족 · 혈통 중심의 폐쇄적이고 이중적인 자세도 있을 것이다. 4대 종단이 나서 얘기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4대종단 관계자들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㉑ 사진 한 장

추억 상기 시켜준 사진 선물

지난 연휴 기간에 부산에서 두 손님이 내 산방을 다녀갔다. 두 손님은 어머니와 딸이었다. 7년 전 불일암에서 함께 찍었다는 사진을 가져왔다. 빈손으로 왔다며 미안해했지만 나는 사진 한 장이 큰 선물이라며 소중하게 받았다. 사진을 보니 그날이 생각났다. 송광사 다비장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법정 스님의 천화(遷化)를 보고 허전하여 불일암으로 올라가 있을 때였다. 두 모녀가 나를 보고 독자라며 찾아왔던 것이다.

나는 외출에서 돌아와 휴식을 좀 취하려고 하던 참이었다. 산방 앞에서 두 손님을 마주친 나는 외면할까 하다가 돌아서 물었다. 부산에서 왔는데 내 책을 좋아하는 독자라고 하니 잠시 반가움이 일었다. 부산이라면 전라도 화순 쪽에서 볼 때 동쪽 끝의 먼 곳이었다. 나는 차를 한 잔 대접하려고 차방으로 불러들였다.

차를 마시는 동안 나는 손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손님은 법정 스님의 평범한 독자가 아니었다. 법정 스님께서 쓰신 〈무소유〉부터 모든 책을 거의 다 애독하고 소장하고 있는 분이었다. 거기다가 나의 책까지 좋아하는 분이었다. 손님의 방 책꽂이에는 법정 스님과 나의 책만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저자의 책들은 다 치워버렸다는데 내가 법정 스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 책이 그런 대접을 받았는지도 몰랐다.


일러스트 · 정윤경

나 역시 스님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겠지만 스님은 출가 수행자이시고 나는 재가자 소설가이기 때문에 글의 뿌리나 색깔은 다르지 않을까도 싶다. 스님의 책을 애독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았다.

"스님 책이 왜 좋습니까?"

"스님께서 경험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살아있는 얘기 속에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를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제야 나는 이 분이 정말로 책을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실감을 했다. 그래서 내 책 중에서는 근간인 〈길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산문집을 선물하고 싶어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이름에 얽힌 사연을 말했다. 증조할아버지는 칠곡에서 태어난 이승연(李昇淵) 독립운동가였다. 남만주의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 전신) 운영비 조달 등을 위해 국내에서 비밀리에 두 차례나 모금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분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 꿈속에 나타나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는 이설안(李雪雁)이라는 이름을 점지해주셨다는 것이었다. '눈 설(雪)' 자에 '기러기 안(雁)' 자의 이름은 눈송이가 나붓나붓 내리는 겨울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풍경을 떠올리게 했다.

"증조부께서는 1933년에 돌아가셨는데 1945년에 해방이 될 거라고 예언하실 만큼 영남 학자들 중에서 학문이 깊으셨다고 합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아내는 선물 받은 사진을 나의 서재 책꽂이에 세워두었다. 7년 전 불일암에서의 그 순간을 선물 받은 것만 같아 마음이 흐뭇해진다.

2018 복합문화공간
KUmuda

쿠무다가 달라집니다

2018년 쿠무다 vision

총 8층 규모 연면적 600평
– 부지 확보 완료 – 건축설계 완료 – 후원 접수 중
(2017년 12월 현재)

8층 **휴휴정**
7층 스님들이 참가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6층 **복합문화학교** (교육원)
5층 **법당** / 기도와 수행을 할 수 있는 신행 공간 (대운사 법당 · 명상센터 · 공연장)
4층 **프렌치레스토랑** / 특화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전문 음식점 · 쉐프, 음식아카데미 운영
3층 **레스토랑** /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정통 레스토랑 쉐프, 음식아카데미 운영
2층 **쿠무다** /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북카페 바리스타 파띠쉐 아카데미 운영
1층 **주차장**
지하 **주차장**

◀ 새롭게 건립될 쿠무다 신축 조감도

쿠무다 개원 4주년 기념
목종 스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북콘서트의 아름다운 동행에 초대합니다

저 푸른 하늘은 자성과 같이 구름 한 점 없고
산과 들은 끊임없이 무상함을 들려줍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실천해야 할 내일이 있습니다.
목종 스님의 '구하지 않는 삶의 즐거움' 중에서





목종 스님
부산 대광명사 주지
서울 지금선원 선원장

BTN신행담 〈가피〉 진행
부산불교방송 〈목종 스님의 월요법문〉 진행
저서 〈구하지 않는 삶의 즐거움〉 _담앤북스

초대 ARTIST



KoN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대학원 졸업
한국 최초의 집시바이올리니스트
〈히든싱어〉 이적 편 우승
뮤지컬 〈모비딕〉, 〈페임〉, 〈오필리어〉 등 출연



주병선
칠갑산과 같은 품격과
한결같은 매력을 지닌 가수
대표곡: 「칠갑산」, 「어머니의 나라」,
「아리아리요」 외 다수

BOOK CONCERT
12월 24일(일) 오후 4시 북카페 cafe KUmuda
초대 ARTIST_ 집시바이올리니스트 KoN · 가수 주병선

예약문의
카페 쿠무다
t. 051-701-7559

cafe KUmuda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62 (송정동 441-21)

일 주 문



과기부 감사패 수상

가섭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스님(불교상담개발원장)은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스마트 쉼문화운동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불자가수회 27주년 법회

김국환 대한불자가수회장은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 27주년 기념 법회를 열었다.

불교상담개발원 살사프로젝트 MOU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과 조계종 국제선센터, 불광사, 성림사 및 양천구 보건소, 송파구 보건소, 마포구 보건소는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인 '살사' 프로젝트의 자치구 중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12월 14일 국제선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조계종 포교원의 지원 하에 진행된 이번 협약은 불교상담개발원이 네트워크 허브로서 자치구 별 사찰 및 해당 보건소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협약식에는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 불광사 주지 본공 스님, 성림사 주지 현담 스님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인사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전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전보인사가 12월 13일 제5차 인사위원회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창훈 사찰교무팀장이 총무차장 △윤승환 총무차장이 기획차장 △박주현 대외협력팀장이 총무팀장 △성만제 백년대계본부 사무행정팀장이 사찰교무팀장 △양원준 사회팀장이 대외협력팀장 △지정학 사서팀장이 사회팀장 △김용구 기획차장이 사서팀장 △류창무 교육원 연수팀장이 재무부 회계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김영주 교육원 종무관이 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황철기 도반HC 전무는 사업팀장을 겸직한다. 황충기 재무팀장은 차장직을 겸한다. 전보인사는 12월 21일 시행된다.

심원섭 한국문화연수원 총괄부장은 파견 복귀에 따라 포교원 전법팀장으로 발령됐다. 대신 김병주 전법팀장 한국문화연수원으로 1년간 파견된다. 양진수 사업팀장은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에 1년간 파견. **윤호섭 기자**



"국제포교사 설법능력 배양의 새해로"

Interview

국제포교사회 20주년 준비하는 박홍우 국제포교사회장

송년법회서 5분 스피치 진행

스피치 스터디 효과, 회원 증대

"설법대회 본뜬 재가대회 열 것"

"올해 토크쇼 형식으로 국제포교사 분들이 5분간 설법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제포교사라 하면 외국인들과 대중 앞에서 불교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제포교사회 20주년을 맞아 스피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가 2018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국제포교 능력 배양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국제포교사회는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내년 예산안을 논의한 데 이어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총 7명의 국제포교사들이 영어로 5분 스피치를 진행했으며, 국제포교사회 최초로 독일 현지에서 포교 전법에 나선 이화선 국제포교사가 한 달간의 포교 성과를 발표했다.

박 회장은 "평창올림픽을 맞아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등 새해에는 다양한 국제포교를 진행할 계획으로 매주 금요일 매뉴얼 마련과 함께 스피치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사회는 최근 국제포교사로 입회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기수별 배출자를 보면 정식 기수 외 54명과 기수 기산 이전 154명을 제외하고 1~5기 84명, 6~10기 145명, 11~15 158명, 16~20기 159명 등 꾸준히 늘었다. 22기의 경우 37명으로 역대 2위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영어 외 일본어 응시자도 3명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매주 수요일 국제포교사 회원들이 모여 불교와 관련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영어로 토론하는 스터디도 진행되고 있다.

박 회장은 "금년 봄에 학인스님들이 설법대회를 했는데, 스님들의 설법 능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포교사들도 설법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에 스피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끝으로 "국제포교사들은 수행과 사회 참여로 전법 포교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겠다"며 "토크쇼 형식이 능력 배양에 큰 도움이 된다. 내년에는 세미나 형식으로도 더해 전문성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 성료

설법연구원, 12월 11일 탄허강숙 사무실서



설법연구원은 12월 11일 제14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동출 스님이 올해도 어김없이 불교활동가를 발굴 · 지원했다. 설법연구원(원장 동출)은 12월 11일 탄허강숙 사무실에서 제14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부처님 가르침처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교활동가 및 단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번 14회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자로는 길상사 아시아밝음공동체 사미타 스님,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홍성란 씨, 김형률추모사업회가 선정됐으며 각 200만원(사미타 스님 300만원)의 지원금을 수여받았다.

사미타 스님은 "내겐 너무 의미가 큰 상이다.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먼저 길상사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절에 들어가서 한국 문화 등을 배우면서 한국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만난 한국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셨다. 앞으로 많은 활동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고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출 스님은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런 뜻 깊은 자리가 14회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진형 기자**

"계층 포교 중심축으로 활동 할 것"

유진상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34대 회장



"불교 발전을 위해 청년회는 계층 포교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층 포교를 위해 활동 역량을 넓히고 이를 위해 대불청 선배들의 역할 강화와 20~30대 젊은 청년 포교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김태훈)는 12월 11일 부산불교연합회 교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34대 회장에 유진상 부회장〈사진〉을 선출했다.

유진상 신임 회장은 앞으로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가 계층 포교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부산에 포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다짐했다.

유 회장은 먼저 "수행을 중심으로 내적 성장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젊은 층 포교를 위해 청년들의 고민인 진로 및 취업 문제도 적극 가담, 함께 해소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 할 것"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유 회장은 미래 대불청 청년들의 공간 마련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유 회장은 "현재 부산 대불청의 구심점이 되어 줄 공간이 없다"며 "청년에게 어울리는 불교 문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진상 회장은 종립학교 해동중학교를 졸업하고 내원정사 학생회 회장, 내원정사 청년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청소년 팀장 및 내원산하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원장,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차장, 사단법인 동련 사무차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왔다. **하성미 기자**

제25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조계종 총무원(원장 설정)이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제25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본지 노덕현 차장은 특별기획 '이제Z세대 포교다'로 신문부문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본지 노덕현 차장은 시상식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교의 법향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진형 기자**

승려복지 기관 · 개인 조계종 표창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려복지제도 공로자로 동국대 의료원 등이 선정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정우)는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승려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한 동국대 의료원과 승보공양 후원활동 우수자(정중채 · 김안순 부부, 고 순이 씨)에게 총무원장 표창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10만 공덕 원력으로 평화 · 도약"



만공회 출범 2주년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진, 이하 불교방송)의 콘서트가 성료했다.

불교방송은 12월 11일 장충체육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과 만공회 출범 2주년 기념 '행복콘서트 Jump BBS'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2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성역화 불사를 위해 모인 조계사 신도들은 아미타불을 정근하며 염주알을 한 알씩 옆으로 전달했다. 수십 분이 지나고 실은 염주알로 채워졌지만 신도들의 정근 소리는 멈출 줄 몰랐다.



보시금으로 마련한 염주알을 정성스레 헌공하는 보살.



이날 조계사 동부 5권역과 북부 1권역은 성역화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한 성금을 약정했다.



십만팔천 염주 봉안을 위해 마련된 염주들.

염주 한 알마다 ‘성역화’ 간절함 담다

조계사 12월 13일 성역화불사 십만팔천염주 꿰기 봉행

성역화 원만성취 발원
영하 날씨 속 염주불사
“공덕 짓는 마음으로 참여”
10만 8000 아미타 세계
직접 만든 염주로 장엄
12월 31일 복장불사 회향

한겨울 대웅전 바깥에는 영하 10도의 찬바람이 몰아친다. 강추위가 닥친 12월 13일 저녁 8시 조계사 대웅전 안은 뜻밖의 훈훈한 열기로 가득하다.

어린 아이부터 청장년과 노인불자까지 대웅전 안에 가득 모여 앉았다. 합장하고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내비친다.

이들은 저마다 자발적인 관심으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에 동참하려고 모였다. 조계사 대웅전 삼존불 중 하나인 아미타불 복장에 들어갈 십만팔천염주를 꿰어 봉안한다니, 선택 받아 모여든 불자들인 양 뿌듯한 자부심이 넘치는 분위기다.

대웅전에 모인 대중들은 곧 금강경을 읽기 시작한다.

서울 조계사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원만성취를 염원하며 11일 10만 8000개의 염주불사를 봉행했다. 3일째인 13일에도 그 열기는 이어졌다.

조계사는 2015년 삼존불 내 금강경 복장불사를 진행, 1차 석가모니부처님, 2차 약사여래부처님 복장을 성료했다. 이번 10만 8000개 염주불사는 염주 완성 후 12월 31일 아미타불 복장에 금강경과 아미타경, 그리고 염주를 함께 봉안하는 3차 불사다.

복장 불사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나온 김전희 보살은 “이런 기회가 또 한 번 있을까 싶어 벅찬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불자로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소에도 나무아미타불하며 염불 수행을 자주 하는데 특히 이번 복장 불사를 진행하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큰 비구들 1250명과 함께 계셨다’는 금강경 첫 구절처럼 오늘 대웅전 앞에 모여든 불자들의 모습이 그날 부처님 앞에 모여든 비구들처럼 겹쳐진다.

아미타경 독송이 이어진다. ‘사리불과 비구들과 모든 세간의 천상사람들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올리고 물러갔습니다’라는 마지막 합송이 대웅전 내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진다.

곧 이어 염주알 헌공이 시작되고 불자들은 저마다 정성스레 가슴에 품고 온 보시금으로 염주알을 마련해 헌공함에 소중하게 넣었다. 그리고 성역화 불사의 원만성취를 염원하며 염주알을 꿰기 위해 모여 앉았다.

손에서 손으로 염주를 이어 꿰는 시간은 반야의 공지로 보살행 수행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염주가 꿰어지고 완성되는 동안 불자의 가슴에 염주알보다 더 영롱한 사리같은 불심이 피어오른다. 불심은 염주를 꿰는 손길에서 손길로 이어져 마침내 모두 하나가 되는 평등심을 이룬다. 평등심이 발현되는 동안 모두의 정성으로 염주가 완성됐다.

완성된 염주가 주지인 지현 스님에게 전달되는 순간은 모든 대중의 정성스런 마음이 하나의 축원으로 합쳐진 순간이었다. 지현 스님의 손에 의해 불단에 올려진 완성된 염주는 한 알 한 알 염주를 꿰어낸 불자의 불심들이 하나로 모인 듯 빛난다.

염주 봉안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은 하나같이 환희심으로 밝게 웃는다. 대웅전을 나서자 다시 영하의 날씨다. 그래도 불자들의 얼굴은 따뜻하고 밝은 기운으로 발그스레하다.

가장 앞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염불을 외던 지명화 보살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를 위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 모든 것이 원만성취되길 바란다. 이번 조계사 삼존불 금강경 복장 불사는 불교계의 숙원사업이다. 조계사는 도심지에 있어 다른 사찰에 비해 협소해 항상 마음에 걸렸다. 이번 성역화 사업을 통해 서울시 지원도 받고 서울의 문화 1번지 조계사가 되길 바란다”며 “불자라면 누구나 극락세계로 가고 싶어 한다. 지금 이런 수행이 그 길로 가는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쁨으로 충만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글= 박진형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불자 염원, 성역화 불사로 회향”

Interview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10만 8000주는 아미타불이 계신 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한 알 한 알 그 길을 직접 만들고 있고 그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이날 복장 불사 참여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지현 스님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도감을 맡아 그동안 총본산 성역화를 진두지휘해왔다.

스님은 “12월 31일이면 부처님 복장 불사의 회향을 마친다”며 “마치고 나면 다시 또 하고 싶어도 못하기에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은 복이 많은 것”이라고 참석 대중들의 공덕을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얼마전 조계사 신도가 아닌 분이 성역화의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 허리가 굽은 어머니를 모시고 온 처사님은 1억 원을 약정하셨다”며 “처사님의 어머니께서 아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셨다. 그 모습을 보니 ‘총본산 불사가 잘 되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사님이 떠올라 금강경 독송에서 이들을 위해 축원했다. 이런 불자대중의 마음이 바로 불교를 살리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끝으로 “불사 시작 첫 날인 12월 11일에 앞줄의 보살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 ‘왜 그렇게 우시냐’고 물어보니, ‘벅찬 마음에 흐르는 감동의 눈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행복감에 흘리는 눈물은 달콤하다고 한다. 우리 조계사 가족들의 눈물이 항시 달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冬至, 이젠 대표적인 불교 명절”

동지 팥죽 나눔 등 전통문화 전승 열기 이어져

민속 명절이자 24절기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동지.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팥죽을 먹는 등 다양한 풍습이 있었던 동지 문화가 불교의 전통문화로 변모했다. 현대화된 사회에서 잊혀져 가는 전통 풍습을 불교계가 전승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전국사찰 및 도심 지역에서 종단협 소속 사찰 133곳이 참여하는 ‘동지 팥죽나눔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종단협 계획에 따르면 이번 문화축제에서 30만명 이상이 팥죽 나눔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특별제작된 한국전통과 올림픽 소개 브로셜도 배포된다. 또 동지문화 중 하나인 이웃돕기와 관련해 모금함을 설치, 모연된 성금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할 예정이다. 또 동지 풍습인 양말 나눔도 함께 진행된다.


조계사의 인사동 동지팥죽 나눔 모습. 일반시민들도 활발히 참여하는 행사다.

종단협은 축제 개막행사로 12월 22일 인사동과 종각, 서울시청과 노량진 등에서 동시에 풍물놀이 등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신도회(신도회장 이기흥)는 산하 날마다좋은날 주최로 12월 16일 북인사동 마당에서 동지 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복바라미와 함께하는 작은 설 동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3000명 분의 팥죽 나눔이 진행됐다. 팥죽 배식 외에도 새해 가훈 쓰기, 복조리 만들기, 전통차 시음 등 새해를 맞아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정관계 인사들도 자원봉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또 한국불교 대표 1번지인 서울 조계사(주지 지홍)는 동지를 앞두고 12월 21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동지 헌말 나누기를 비롯해 5000명 분의 팥죽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계사는 12월 20일 동지 기도 입재에 들어가 22일 회향한다.

최종현 조계사 기획차장은 “대표적인 불교 사찰인 만큼 불자들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라며 “우리 전통문화를 불교계가 잇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 절기 중 하나인 동지는 불교와 친숙하다. 매년 사찰에서는 동지불공이 이뤄지며, 팥죽을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대중이 함께 나눠먹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액운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 발심과 자비 실현의 의미로 보다 확장되고 있다.

구미래 동방대학원대 교수는 “사찰은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전통 풍습을 그나마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지키는 역할과 동시에 자비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며 “전통 풍습을 전승하는 역할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동지와 불교

동지가 불교와 어떤 관련이 있어 사찰에서 동지법회를 열고 팥죽 공양이나 팥 시루떡을 공양하는 걸까? 불가에서는 동지나 팥죽에 관련한 설화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이 분황사 예불에 참석했는데 여왕을 사모하던 ‘지귀’라는 청년이 여왕을 만나고자 해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 원귀가 돼 서라벌의 사람들을 괴롭혔다. 여왕은 스님들의 의견에 따라 동짓날 팥죽을 문간에 뿌린 후 원귀의 행패가 없어지고 사찰에서는 동지에 팥죽을 먹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불교계에서는 동짓날 일주일 전부터 대덕 스님 초청 법문 등 동지 불공법회가 열린다. 특히 지난 한해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을 가다듬는 날로 자리 잡고 있다. 사찰에서는 철야 정진 법회를 열기도 한다.

옛날 중국 총림에서는 동재라 하여 사찰 주지스님이나 일반신도가 시주가 돼 동짓날에 대중을 위하여 베푸는 재회를 봉행했다고 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종의 대중공양이다.



이웃위한 8000김치 봉은사서 탄생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2월 9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자비의 김장 나누기 축제를 개최했다. 한파가 몰아친 와중에도 주지 원명 스님과 신도들을 비롯해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자유한국당 이은재 국회의원 등 대중들은 김장 8,000여 포기를 담갔다.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이 소금에 절여진 배추를 나르면, 신도들이 김장 속을 버무렸다. 봉은사 대중은 김장 8000포기 중 3000포기를 독거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 지역 아동센터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장애 넘어선 불심 한마당 펼쳐져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14회 수화사랑 음악회 개최

수화 표현 음악공연 펼쳐져
재활원 이용자 부모들 동참

불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한마음으로 뭉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인 포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17 수화사랑음악회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수화사랑음악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통공연장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로 표현된 음악공연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승무를 주제로 한 장애인불자들의 춤사위도 이어졌다. 연화직업재활원 이용자 및 이용자부모회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찬불가 가수 능인 스님, 은방울자매, 수화사랑합창단 등의 흥겨운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해성 스님은 이날 시각과 청각 장애인 불자들이 불교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점자 불교서적을 전달했다. 또 자비의 쌀을 함께 나누고 장애인 자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보시도 실천했다.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은 “불교와 사회 속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와 관계 없이 모두 공존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노덕현 기자

대학생들 함께한 ‘나누는 기쁨’

맑고향기롭게, 대학생 봉사 지원 마무리

‘나누는 기쁨’이 2017년 봉사 지원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 짓고 2018년 새로운 사업을 위해 도약할 예정이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12월 10일 대학생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나누는 기쁨’의 2017년 활동 내역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행 첫 해였던 2017년의 성공을 발판으로 2018년에 더욱 도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7년 ‘나누는 기쁨’에 선정된 대학생 봉사동아리는 ‘나누미’와 ‘미라클’이다. 이화여대, 연세대 학생들이 모여 만든 연합교육동아리 나누미는 대학생들의 재능을 살려 조손, 한부모, 빈곤가정 등 아이들에게 교육봉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총 30여 명의 학생들과 ‘어린이날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등 총 4회의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미라클은 경희대 봉사 동아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안락한 집이 잇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열악한 주거환경서 거주하는 이웃을 위해 집짓기, 집 고치기, 벽화그리기, 가구 만들기 등의 봉사를 진행해왔다.〈사진〉 맑고 향기롭게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미라클’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맑고 향기롭게는 “그동안 고등학생으로 한정해 운영하던 장학금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2017년에 처음으로 대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학생 봉사활동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렇게 생겨난 ‘나누는 기쁨’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돼 기쁘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2018년 나누는 기쁨은 4월부터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따뜻한 숨결로 자살예방 · 생명존중”

생명나눔, 제3기 의대생 자원활동가 ‘따숨’ 해단식


2015년 생명나눔과 메디키퍼 서울지부가 만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만든 자원활동가 모임인 '따뜻한 숨결(따숨)'의 해단식이 12월 13일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2월 13일 본부 회의실서 제3기 대학생 자원 활동가 모임인 ‘따뜻한 숨결(이하 따숨)’의 해단식을 진행했다. 이 날 해단식은 활동사항 보고와 우수활동가 표창, 격려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제3기 따숨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간 자살 예방 캠페인 등을 운영하며 생명존중 문화활동을 전개했다.

따숨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치유를 통한 자살예방 홍보 릴레이 캠페인과 길거리 캠페인, 고등학교 자살예방 치유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템플스테이는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해단식서 우수활동가 표창장을 받은 강민수 따숨 대표(30, 한양대의대 본과 4)는 “자살은 개인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숨의 활동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더욱 많은 사람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사상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상균 생명나눔 사무총장은 “9개월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생명존중 교육을 펼쳐준 제3기 따숨 활동가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생명나눔은 지역사회 생명존중과 자살예방교육에 귀감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따숨은 2015년 생명나눔과 메디키퍼 서울지부가 만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만든 자원 활동가 모임이다. 박진형기자

“죽음 앞, 오직 수행만이 유의미”

생생문화포럼 시민강연… 주제: 불교의 관점에서 본 죽음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죽지 않는 생명은 없고 누구나 죽음 앞에 무력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려 한다. 부처님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늘 수행하라고 하셨다. 오히려 죽음을 인지해야 삶의 가치를 깨닫고 매 순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12월 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생문화포럼 시민강연서 ‘불교의 관점에서 본 죽음의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안 교수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죽음에 대한 수행과 명상을 지속해야 삶의 매 순간 깨어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안성두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 독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한국학대학원에서 한국불교 전공으로 석사를, 독일 함부르크대학 인도학과에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3~2009년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및 교수를 역임했으며, 2009년 9월 서울대 철학과 교수에 임명됐다.

불교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한 번의 생과 한 번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반면 불교는 윤회라는 인도 문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윤회란 생과 사, 재생과 재사의 끝없는 순환입니다.

불교는 무수한 삶과 생이 이어진다고 보지만 우리의 죽음이 무의미하다거나 아무렇게나 죽어도 된다는 종교는 절대 아닙니다. 불교는 죽음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끔찍하거나 불유쾌하다고 해도 눈을 돌리지 않고 직시하라고 합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를 오히려 잡아먹고 우리를 나태하고 퇴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반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외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미쳐올 부정적 영향 때문에 가능하면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도 보여요. 집에 시신을 모시고 손님도 접대하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집에 계신 분도 병원으로 보내 임종을 맞게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외면하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죽음인데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 배운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실 죽음이 무엇인가 묻기 전 인간이 무엇인가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영혼과 신체로 이뤄져있다고 하는 이원론적 답이 가장 고전적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죽음에 의해 소멸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영혼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연과학, 유물론자, 물리주의자들이 갖는 입장일 것입니다. 또 ‘파괴되는 것은 정신이나 영혼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라는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죽었을 때 남아있는 것은 그야말로 단백질 덩어리며 영혼 없는 신체고 부패해 가기 시작하는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영혼은 그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신의 세계나 부정적 세계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 기독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맥락에서는 인도 정통 종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트만은 신체가 소멸한다고 해도 신체 속에 숨어있는 영원한 본질입니다. ‘수많은 윤회 · 전생을 거치지만 불멸하는 아트만이 있고 따라서 파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들의 본질은 아트만이고, 신체 등은 허상에 불가하다. 우리들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의 본질이 아트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때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서 불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트만이 지금 머물고 있는 육신을 없애고 무명을 가진 채로 다른 몸으로 건너가 그 몸에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심신과 윤회는 어떨까요? 불교는 이런 종류의 아트만을 비판하면서 독자성을 확립해 갔습니다. 불교의 교설은 결국 무아(無我)설입니다. 어떠한 본질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다고 확신해야 안도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세계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붓다는 아트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로인해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심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붓다는 심신이 신체와 심리요소의 복합체고 이들 요소와 독립해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신체 내면에 숨어있는 영원한 본질이라는 것을 붓다는 전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본질이 없다면 대체 무엇이 윤회하는 존재일까요? 불교는 식(識)을 윤회의 주체로 봤습니다. 또한 윤회하는 이유는 업과 번뇌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번뇌라는 것은 쉽게 부정적 심적 작용인 탐진치(貪瞋癡)입니다. 탐진치라고 불리는 우리의 의식 작용과 그로 인한 업 때문에 우리가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부정적 의식 작용이 멈추는 순간 열반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붓다는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죠.

불교에서 죽음에 대한 명상의 의의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역시 모든 세포가 교체 되는데 길어야 6년이라고 합니다. 6년 전 우리를 구성했던 세포는 이제 아예 존재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가 변한다는 것은 매일 경험하고 있죠. 느낌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이런 무상감이 불교적 통찰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붓다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수행하지도, 변하려고 생각지도, 선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 찰나 변화한다고 하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순간순간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노력할 수 있겠죠.

> “
> **인생 가장 큰 사건인 죽음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죽음 인지하고 끝없이 수행해야 삶의 가치 깨닫고 매 순간 집중**
> ”

무상함의 가장 극적인 형태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취, 노력, 영광, 성공 등 이 죽음 앞에서 전부 무(無)가 됩니다. 불교는 이 죽음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하는데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초기불교는 여러 가지 주의집중, 불교 수행에서 핵심적 명상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정신적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죠. 명상은 영어로는 ‘Mindfullness’라고 합니다.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죠. 티벳의 어떤 유명한 승려는 ‘난 20년간 수행을 피하며 살아왔고 20년은 내일 수행해야지 하며 살아왔고 나머지 20년은 수행하지 않음을 후회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행복하고 즐거우니 문제들은 내일, 다음에 해야지 하며 실질적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을 불사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의집중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삶, 찰나 찰나 자신의 느낌을 관찰하지 않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교는 특히 죽음에 대한 주의집중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에 책임을 돌리고 더 심하면 부처님과 신에게도 책임을 돌립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들은 현재에 주의 집중하는 사람뿐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수행을 하기 위해 붓다가 권했던 가장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정관입니다. 부정관이라는 것은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관찰을 좋아하는 종교죠. 신체를 하나하나 쪼개 그것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초기 수행자들은 공동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섞여 분해돼 백골이 되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도 그렇게 될 것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명상했습니다. 특히 탐욕이 많은 자에게 탐욕의 허망함을 일깨우기 위해 권장됐습니다.

뼈마디가 나눠지고, 그 뼈마저도 나중에는 백골이 되는 것을 ‘지금 죽어가는 시체도 나의 신체와 다르지 않다. 죽음이 저런 성질을 갖고 있다면 나의 신체도 저런 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관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붓다가 부정관을 가르쳤을 때, 수백 명의 승려들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신체야말로 모든 삶이 이뤄지는 터전인데 어차피 결국 다 부패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관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정도로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어떻게 죽음에 대한명상을 수행하는가?

죽음 앞에서 과연 무엇이 도움 될까요? 가족? 재산? 친구? 친척? 선업? 여기서 죽음에 대한 예비적 수행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티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아침에 깨어난 후 죽음에 대해 명상하지 않는다면 아침은 헛되이 지나간 것이다. 만일 그것에 대해 오후에도 명상하지 않는다며 오후도 헛되이 지나갔다. 마찬가지로 밤에도 그것에 대해 명상하지 않는다면 밤도 무의미하게 사라져간 것이다. 우리는 수행자가 아니기에 매번 생각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서 죽음에 대한 관념을 개발시켰다면 죽어가는 주변인, 친구들을 더욱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명상이 주는 이익은 결국 삶의 의미에 대한 자각입니다.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관계가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것 느꼈습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죽음은 미혹된 욕망의 허망함에 대해 자각하게 해줬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욕망에 의해 점철 돼 있는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각을 줄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삶의 매 순간을 깨어있게 만들겠다는 각성을 통해서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판단할 때, 불교는 세 가지를 자각하라고 말합니다. ①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 그리고 따라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확신입니다. 모든이에게 죽음은 오고 그래서 반드시 수행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죽음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 따라서 지금 수행해야한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무한히 연장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은 좀 놀고, 내년부터 해야지 하고 생각 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음이 가변적이라는 것을 인식해 우리들의 의식을 호흡에 놓고 관찰 하는 등의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③죽음 앞에서 오직 수행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 따라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명상하면 됩니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제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2월 29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열반, 깨달음과 합일하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⑧ 자유 향한 태자의 여정 '팔상탱' 4

내 무덤에서 울지 마오.
나는 거기에 없소.
나는 거기에 잠들지 않았다오.

나는 불어대는 천 갈래의 바람이요.
나는 하얀 눈 위에 흩뿌려진 금강석 반짝임이요.
나는 무르익은 곡식을 비추는 햇살이요.
나는 조용히 내리는 가을비요.
당신이 아침 고요 속에 눈을 뜰 때,
허공에 포물선을 그리며 가볍게 날아오르는 새요.
밤하늘에 빛나는 부드러운 별빛이요.

내 무덤에서 울지 마오
나는 거기에 없소.
나는 죽지 않았다오.

–어느 아메리칸 인디언의 시

이 시를 읊고 있는 주체는 망자(亡者)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내려다보니, 자신의 무덤에서 오열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가 자신의 어머니이건, 아들이건, 남편이건, 부인이건 어쨌든 살아생전 나를 절절히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덤을 떠날 줄 모르는 그에게 "내 무덤에서 울지 마오. 나는 거기 없소"라고 일러줍니다. '나는 자연과 계합하여 바로 당신 곁에 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당신 뺨을 어루만진 걸요' 라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변화의 여정 속에 있으니, 나의 상(相)에 머물러 슬퍼말아요' 라고 하네요.

"일체가 無常하니, 애통해 마소서"

이와 유사한 대목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장면인 '쌍림열반상' 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도솔천에 계시던 어머니, 마야부인이 한 걸음에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이 보관된 금관 앞에서 애통해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일으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마야부인이 석가모니 죽음에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슬퍼 어찌할 바 모르거늘 세존이 신통력을 일으키니, 금관의 뚜껑이 열리고 부처님이 일어나시어 백 천 광명을 놓으시니, 광명마다 백 천의 화불이 나타나, 부인을 위로하되 "세간의 모든 일이 일체가 무상(無常)하오니, 법이 그러하오니, 너무 애통해 마소서." –〈팔상록〉 中

관 속에 또는 무덤 속에 있는 나는 나의 껍데기이지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법(法)대로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니까, 금관의 뚜껑을 열고 '백 천의 광명과 백 천의 화불' 로서 법계(진리의 세계)와 계합해 있는 지금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십니다.



분출하는 사리 구슬, 성화자분(聖火自焚) 장면. 〈쌍림열반상〉의 부분, 흥국사 팔상탱, 1869년, 견본채색.

무덤 속의 나는 내가 아니다
깨달은 마음은 진리와 계합해
오색 사리 하늘서 비처럼 내려
佛身常住 사상 단면을 보여줘

불교에서는 죽음을 '사대(四大)육신이 흩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대란,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으로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 요소들이 인연이 다해 뿔뿔이 다시 흩어져버리면 육체의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대육신이 흩어지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입니다. 천차만별의 중생들의 천차만별의 업(業)대로 천차만별의 마음들이 남습니다. 무수한 마음들이 유존하는 것 같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 마음들은 간단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깨어있는 마음과 깨어있지 않은 마음' 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마음을 영가라고 부릅니다. 깨어있지 않은 마음은 윤회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마음은 진리의 세계인 법계와 계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도 활짝 깨어있으셨기에, 깨어있는 마음 그대로 법계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찬란한 빛이었으며 영롱한 여의주의 향연이었습니다. 무수한 광명의 입자, 불성(佛性)의 입자들이 '제망찰해(帝網刹海: 인드라 또는 제석천의 광명 구슬로 이루어진 그물망이 온 우주 바다에 끝없이 펼쳐진 모습)' 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드라망 또는 제망의 기본 원리는 화엄경에서 역설되는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의 연기(緣起) 사상입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철학자 켄 윌버의 〈무경계(No Boundary)〉에 인용된 R.M.버크(캐나다 정신의학자)의 증언을 보도록 합시다. 깨달음의 차원에서 세상을 보니 바로 '인드라망' 의 세상이었습니다. 신성한 여의주들이 '연기' 되어 '무상' 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객이 없이) 통으로 하나였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가 스스로를 재통합하고 있었다. 우주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으로써 질서에서 질서로 이어져 가며 재결합하였다. 아무런 단절 없이, 단 하나의 빠진 고리도 없이, 모든 것들이 적시 적소에서 질서정연하게 이어져 있음을 보았을 때 그 엄청난 기쁨. 모든 세계,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어우러져 있었다. –켄 윌버〈무경계〉 中

신령한 사리 구슬 내려오네

불교회화 속에는 이러한 법신(法身) 또는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조형적 표현과 상징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옛 화승(畵僧: 불화를 그리는 스님, 금어 · 화사 · 화원이라고도 함)들은 끊임없이 방편 아닌 방편으로 이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사찰의 탱화로 크게 유행한 팔상도의 마지막 화폭에 해당하는 '쌍림열반상' 에는 석가모니 일대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들로 구성됩니다. 두 그루의 사라수 아래에서의 열반에 드시자 제자들이 슬픔과 비애에 휩싸이는 장면(쌍림입멸 雙林入滅), 슬퍼하는 마야부인을 위해 금관에서 나와 진리의 몸을 보여 위로하시는 장면(불모상견 佛母相見), 뒤늦게 달려온 제자 가섭을 위해 관 밖으로 발을 보이시는 장면, 제자들이 금관에 불을 붙이려 하나 불붙지 않는 장면(범화불연 凡火不然), 스스로 금강삼매의 불을 일으키셔서 금관을 태우는 장면(성화자분 聖火自焚), 그러자 폭우처럼 분출하는 8곡4두의 사리 장면과 사리의 분배 장면 등이 한 화폭에 어우러져 석가모니 열반 당시의 정황들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사리의 분출' 장면입니다. 그림의 화기에는 '8곡 4두의 오색 사리가 마치 비처럼 쏟아진다.(八斛四斗五色舍利如雨散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리가 비 오듯 쏟아지고 스님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일제히 성반(聖盤)을 머리위로 치켜든 모습은, 장관이면서도 매우 해학적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중국 및 일본 등지의 열반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창의적인 특징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인 불신상주(佛身常住) 사상이, 부처님의 육신이 소멸하여도 본질적인 법신(法身)은 항상 여여(如如)하게 상주(常主)한다는 사실을, 무량한 사리의 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구슬과도 같은 이것을 고려 말기 나옹화상은 영주(靈珠: 신령한 구슬)이라고 지칭합니다. 나옹화상의 '구슬의 유희' 란 뜻의 제목을 가진 '완주가(玩珠歌)' 를 보면, 신비한 여의주(또는 영주靈珠)의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구슬(靈珠), 영롱하기 그지없네/ 본체는 하천과 모래사장 두루 있지만 안팎은 비었네/ 사람마다 부대 속에 당당히 간직해/ 오며가며 희롱해도 다함이 없네." 〈끝〉

[연재를 마치며]

지난 1년 간, 불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독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신 '현대불교신문' 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보다 아름다운 인연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날을, 일상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일상이 되는 그 날을, 기약합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 무등산 미륵사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 부 설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총무원 :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전 화 062)234-9834 | 팩 스 062)223-9233
핸드폰 010-4152-4744, 010-5479-5607



서구에 불교는 어떻게 전래됐나

동국대 불교사회硏, '서구로 간 붓다' 학술대회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최초의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8세기 초엽까지 부처는 인도의 많은 신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하지만, 서구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식민지화 시키면서 불교는 서양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불교가 서구에 어떻게 전래되고 변용됐는지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김성철)과 인문학연구소(소장 박용희)는 12월 6일 교내 원효관 4층서 '서구로 간 붓다 - 서구의 불교 수용과 변용' 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영국 ·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등에서 불교가 어떻게 수용됐고 변용됐는지를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또한 톨스토이와 바그너와 같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세계에 어떻게 불교를 투영했는지를 살펴 눈길을 끌었다.

장영숙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러시아 불교- 톨스토이의 불교 수용과 이해' 에서 러시아의 대표적 문호 톨스토이의 불교 수용과정과 이해를 분석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톨스토이가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 후반 그에게 '정신적 위기' 가 찾아오면서 부터다. 톨스토이는 '바닥까지 추락한'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치열한 자아 탐색과 삶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던졌고 동 · 서양 현자에게서 그 답을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톨스토이가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장 교수는 "당시 톨스토이는 마냐예프와 같은 러시아 인도학 학자들과 교류하며 불교사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며 "톨스토이의 불교 수용은 종교적 차원보다 사회 윤리적 · 존재론적 대안 찾기에 가깝다. 그에게 불교사상은 서구 종교에서 찾지 못한 방향과 진리를 가르쳐주는 현자의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톨스토이가 주창한 '비폭력 무저항' 이라는 평화주의 사상도 불교에 기반하고 있다고 장 교수는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인간을 넘어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은 불교의 핵심 요소인 불살생의 모습"이라며 "윤회 사상은 톨스토이의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 의 시원이며, 업보와 함께 함께 톨스토이가 지향하는 도덕적 윤리적 삶의 주요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톨스토이


바그너

서구 불교 수용 · 변용 조명해
각 국가 불교학 추이 연구도
톨스토이 · 바그너 작품 세계서
불교 어떻게 투영됐는지 살펴

김희영 대구 한의대 교수는 '바그너 음악의 불교수용' 을 통해 독일 음악가인 바그너의 작품 세계 안에 불교가 어떻게 투영됐는지를 살폈다.

김 교수는 바그너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접하기 전부터 이미 동양 사상과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전제했다. "기독교가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하며 제도화된 종교로 변질됐다"고 바그너는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교가 가장 완전한 형식으로 종교적 본성을 유지하고 있다" 고 봤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바그너는 불교의 해탈의 이념이 서구 물질문명의 해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약속으로 봤고, 그 가능성을 윤회의 원리서 찾았다"면서 "바그너는 스스로 발견한 불교의 주요 사상들을 통해 인간의 '내적 구원' 기획을 위한 예술적 열정과 결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바그너의 이해는 그의 음악극이 지니는 구원의 메세지를 위한 상호보완적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그너에 있어 기족의 기독교적 '구원' 개념은 불교의 '출가' 나 '해탈' 개념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남철호 경남과기대 교수의 '빅토리아시기 영국 불교학과 의미' △이경일 경성대 교수의 '프랑스에서의 불교연구' △박용희 동국대 교수의 '독일에서의 불교연구' △김주관 동국대 교수의 '미국불교의 전래와 확산'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초기불교 · 한문 강독… 공부 삼매 빠져 볼까

올 겨울 눈길 끄는 불교계 강의 2選

추위로 온 몸이 움츠려는 계절, 불교 관련 공부로 이겨내 보는 것은 어떨까.

남원 실상사는 오는 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실상사겨울학림' 을 개최한다. '초기불교 교학과 수행' 을 주제로 열리는 겨울학림에는 강사로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이 참여한다. 교재로는 초기불전연구원이 펴낸 〈초기불교입문〉이 활용된다.

접수는 실상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동참금은 30만원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회원은 20% 할인된다.

이번 겨울학림에 대해 실상사는 "불교는 문자 그대로 '부처님(佛)의 가르침(敎)' 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과 직계제자들의 가르침을 초기불교라 한다"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돼 잘 전승되어오는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공부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063)636-3031

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呑虛講塾)' 은 겨울방학을 맞아 선시(禪詩)와 선가귀감(禪家龜鑑) 특강을 진행한다.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가 진행하는 '선시' 강의는 내년 1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 탄허강숙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선가귀감' 강의는 동국대 박사인 선암 스님이 강의하며, 내년 1월 4일부터 1월 25일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에 열린다.

이번 특강접수는 내년 1월 8일까지 이뤄지며, 수강인원은 25~30명 선착순 마감한다. 특강료는 강의비와 교재비

실상사, 1월 겨울학림 열어
탄허강숙, 방학 특강 진행

포함 7만원이다. 접수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된다.

이번 강좌에 대해 탄허강숙은 "겨울방학 특강으로 중국 · 한국의 대표적인 '선시' 와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을 강의한다. 선시 강의 첫날에는 이상하 교수의 '주자(朱子)의 불교비판' 에 대한 특강도 진행될 것"이라며 "고금(古今)의 지성(知性)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만큼 불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02)732-2403~4 신성민 기자

불교평론 새 편집위원장에 박병기 교수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의 새 편집위원장에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불교평론〉은 "제5대 편집위원장에 박병기 교수를 선임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박 교수는 내년 봄호부터 편집위원장을 맡게 되며, 2년 동안 〈불교평론〉의 편집과 제작을 이끌게 된다.

박 교수는 서울대 윤리교육과와 동대학원에서 윤리학과 도덕교육학을 전공했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에서 불교철학과 계율을 공부한 학자로 오랫동안 〈불교평론〉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장으로서 2015 초 · 중 · 고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총괄했다.

주요 저서로는 〈동양 도덕교육론의 현대적 해석〉, 〈의미의 시대와 불교윤리〉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증평군 불교유적 활용 나선다

12월 8일 증평군청서 학술대회

증평군이 관내 불교유적 활용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증평군은 12월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불교유적 활용방안 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증평군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증평읍 남하리에 위치한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군을 중심으로 증평군의 여러 불교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춘실(충북대학교 교수), 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원 원장), 정제규(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류호철(안양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적이 산재한 증평 지역이 삼국시대부터 주요한 요충지였음이 새롭게 조명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 새로운 가족관 정립에 도움"

불교여성연구소 창립 6주년 토론회

붓다, 가족 간 평등 강조
現 가족 유연성 수용해야



불교여성연구소는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탈가족시대의 가족을 말하다' 를 주제로 창립 6주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탈가족시대,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여성연구소(소장 조은수)는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탈가족시대의 가족을 말하다' 를 주제로 창립 6주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현재 탈가족 현상에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들이 이어졌다.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불경을 통해 살펴본 도반으로서의 가족' 에서 불교는 가족에 대한 자비심과 성평등을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불교가 출세간을 지향하고 남녀차별을 부추기는 등 가족관에서 부정적 요소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경전을 살펴보년 불교야 말로 가족에 대한 자비심과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붓다 스스로도 출가 전 가족 구성원이었고, 성도 후 승단을 구성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한 것이 가정이었다. 승가공동체는 호혜와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족공동체를 참고해 조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의 자비심과 제도의 의지는 가족애로부터 출발한다"면서 "좁게는 현생의 가족부터 넓게는 윤회 안에서 모두가 내 가족이 아님이 없다는 자비심으로 확대된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자연스럽게 재조정 · 구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가족의 친밀성 변화와 불교적 가치관의 검토' 를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족 변화 현상을 진단했다.

박 실장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유연성은 생애 과정을 기획하는 개인적 선택의 결과"라며 " '사랑하되 구속하지 않는 개인 중심의 가족' 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가족 질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의 가족관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구속적이지 않는 친밀성을 제공한다"며 "한국불교도 교리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현 사회의 가족 유연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의 가족 문제와 불교적 대응방안' 을 발표한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이웃과 큰 불자가족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불전부·아함부·반야부
법화부·화엄부·정토부

붓다의 가르침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동산불교대학·동산불교대학원에서는 오는 1월 9일 (화) 부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불교 원전을 중심으로 불교사상을 강의했으며, 팔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원전 번역과 학술적 연구에 매진하며 활발한 저술활동에 힘쓰고 있는 최봉수 교수를 모시고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붓다의 가르침"〉을 교재로 하여 경전 강독 법회를 엽니다.

불전부·아함부·반야부·법화부·화엄부·정토부의 순서로 진행될 육부 경전 정선본은 벵고 고익진 교수님께서 정선하시고 최봉수 교수님이 번역했습니다. 이 정선본의 강독은 매년 32강씩 6년에 걸쳐 이어질 계획이니, 많은 불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걸으며 부처님과 호흡을 함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개 강 2018년 1월 9일(화) 오후 7시
• 제 1강 – 오후 7시
• 제 2강 – 오후 8시 20분
장 소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강 의 최봉수 교수
내 용 1부 불전부(부처님 생애편) 32강
• 2018년 1월, 2월 (16강) : 수행성불, 교화열반
2부 아함부 (2년차 – 32강) : 십이처 · 십업설법문 등 사대법문
3부 반야부 (3년차 – 32강) : 금강경, 팔천송 초품 · 강가데비품, 반야심경
4부 법화부 (4년차 – 32강) : 법화경 서품, 방편품, 비유품, 수기품
5부 화엄부 (5년차 – 32강) : 서분초지, 아함오지, 반야이지, 법화이지
6부 정토부 (6년차 – 32강) : 극락장엄경 소본일사, 광본삼사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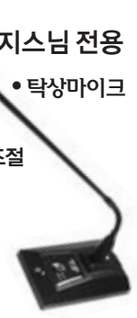
현재 법당의 엠프설비를 "UBS 내장형" 최신형,
최고급「800W 파워드믹싱 앰프」셋트로
160만원에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2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예쁜 마이크형 목걸이 증정 "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 CD기기 (5개 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평화·행복·자유 누리며

예전에 일본에 일휴 선사가 있었다. 임제종의 고승(高僧)으로 무애행(無碍行)의 일화를 많이 남긴 스님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일휴 선사는 어린 스님과 함께 저잣거리를 걷고 있었다. 생선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그들의 코에 스며들었다. 일휴 선사는 입맛까지 다시며 중얼거렸다. "하, 생선 굽는 냄새하며 술 거르는 냄새가 마냥 좋구나."

어린 스님은 실망스런 눈빛을 숨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됐다, 저런 위인이 어찌 불법(佛法)인들 알고 있겠는가. 속물이나 다름없는데…."

한참을 걸어 절 입구에 다다르자 어린 스님은 기어이 입을 연다. "큰스님께서는 일체를 초월해 진리와 한 몸을 이루신줄 알았는데 저자거리의 생선 굽는 냄새, 술 거르는 냄새에도 집착하시다니 실망이 큽니다."

그러자 일휴 선사는 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너는 그 냄새를 무겁게 여기까지 들고 왔느냐? 나는 이미 저자거리에서 버리고 왔는데."

〈중론〉의 귀경계(歸敬偈)에서 그 유명한 팔불계(八不偈)를 남기고 있다. 해탈자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不生亦不滅)/ 항상 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으며(不常亦不斷)/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不一亦不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不來亦不去)'

그러나 여기에서 천지개벽하듯 한 바퀴 돌아오면 꽃은 꽃이고 산은 산이며 물은 물인 것이다. 오면 반갑고 가면 서운하며 여름에는 삼베옷이 좋고 겨울에는 솜바지가 좋은 것이다.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일상(日常)의 평범한 보통사람이 참사람이기 때문이다. 참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키우지 않는다. 모으고 쌓으며 명예부근에서 얼씬거리거나 방편을 앞세워 남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고 말과 행동이 순수하고 진솔하다.

하나를 보여도 열을 보이는 것이요 열을 보여도 하나를 감추지 않기 때문이다. 꾸미고 드러내며 쌓아두려는 소유욕이 평화와 행복, 자유를 짓누르는 병이 됨을 잊지 말일이다. 사람이 앓는 모든 병은 집착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 존재이다. 수많은 동행자와 반려자를 만나고 헤어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타는 목마름의 뼈를 녹이는 아픔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나, 누구도 나일 수 없다
이곳이 정토요 모든 이가 부처

이것이 도인의 삶이자 선지식의 정신세계인 것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지 않는, 머묾 없는 머묾이 평화와 행복, 자유 누리는 깨달은 자의 삶인 것이다.

혼자 있어도 부족하지 않고 열이 있어도 넘치지 않는 것이다. 비어있으나 가득하고 가득하나 비어있기 때문이다.

명예나 재색(財色)으로 윤회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오면 오는 것이요 가면 가는 것일 뿐 있고 없음에 꾸미거나 드러내거나 감추지 않는 것이다.

비우고 버리며 나누기를 생활화할 뿐 변두리와 모서리를 키우지 않는다.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요 만나는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이다. 더러는 흔들리고 헐떡이나 머묾이 없어 자취가 없다. 목마르면 물마시고 졸리우면 잠을 자는 평범한 보통사람으로 열린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가르주나(용수)는 그의 저서인 나는 나, 누구도 나일 수 없다. 나는 나일뿐, 그 누구도 나일 수 없고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뿐이 아닌 그 어떤 물질도, 명예도, 사랑도 잠시 스치는 소유일 뿐 흔들리며 흩어지며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사람들은 종교의 신앙을 빛을 삼아 영원한 생명, 평화, 행복, 자유를 찾아 길 떠남의 나그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봄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뜰에 핀 매화가지에서 봄을 찾듯 평화와, 행복, 자유는 열린 마음에서 자라는 또 하나의 생명인 것이다. 진리는 숨어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요 만나는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인공으로 평화와 행복, 자유누리며 살 일이다.

발가락 아픈 통증 느껴 道 깨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현사사비(玄沙師備:835~908) 선사는 당말오대(唐末五代) 스님으로 어부로 생활하다 나이 30이 되어 출가를 하였다. 속성이 사(謝)씨로 사삼랑(謝三郞)이라 불리기도 했다. 사씨의 셋째 아들이란 뜻이다. 동정호 호숫가에 사씨 집성촌이 있었는데 주로 고기를 잡아 생활을 하였다 한다. 복주(福州) 민현(縣) 출신으로 부용산(芙蓉山) 영훈(靈訓) 문하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타행(頭陀行)을 닦으며 종일 좌선을 하고 지냈다. 능엄경(楞嚴經)을 보다 심지를 밝혔다 하고 후에 설봉의존(雪峰義存)을 만나 그의 법을 이은 것으로 되어 있다.

현사산에 들어가 30여 년을 교화활동을 하여 800여 명에 달하는 수많은 학인들이 그의 문하에 모여 지도를 받았으며 복주의 최고 관리 왕심지(王審知)가 선사를 스승으로 모셔 성심껏 섬겼는데 자의(紫衣)와 함께 종일대사(宗一大師)라는 호를 올려 존경을 표하였다.

사비는 한 때 오미선(五味禪)을 닦으며 제방을 순력한 적이 있었다. 오미선이란 일미선(一味禪)과 상대되는 말로 방편의 맛이 석여 있는 여래선을 비판하는 뜻으로 쓰인 말이다.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한 규봉종밀(圭峰宗密:780~841)은 〈도서(都序)〉에서 선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외도선(外道禪), 범부선(凡夫禪), 소승선(小乘禪), 대승선(大乘禪), 최상승선(最上乘禪)을 말하고 최상승선이 달마 문하에서 대대로 전승되어온 선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 구분은 조사선의 안목으로 전하는 일미선(一味禪)의 경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조사선의 입장에서는 말하고 있다.

〈선문염송설화〉 256칙에 오미선 이야기가 나온다. 젊은 스님이 귀종(歸宗) 선사 회상에 있다 하직을 고하고 떠나려 할 때 선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려는가?" 젊은 스님이 대답했다. "여러 곳으로 오미선(五味禪)을 배우러 가겠습니다." 선사가 말했다. 제방에는 "오미선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여기에는 단지 일미선(一味禪) 뿐이라네."

〈종용록(從容錄)〉 81칙에는 현사의 오도기연(悟道機緣)이 간략이 소개되어 있다. 현사가 산 고개를 넘다가 발로 돌부리를 차 발가락을 다치고 심한 통증을 느꼈다. 아얏! 하고 아픔을 느끼는 순간 홀연히 깨달았다. "이 몸이 있지 않거늘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이 몸과 아픔은 궁극적으로 생긴 곳이 없다. 이제 다 그만 두고 그만 두자. 달마가 동토로 오지 않았고 이조(二祖) 혜가도 서천으로 가지 않았다.(是身非有 痛自何來 是身是苦 畢竟無生 休休 達磨不來東土 二祖不往西天)" 이렇게 말하고 마침내 돌아와 능엄경을 읽다가 심지(心地)를 통달했다. 그리고는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응하면서도 경전의 교설과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현사축지(玄沙蹴地)'라는 말이 고봉원묘(高峰原妙:1238~1295)의 〈선요(禪要)〉에도 나오며 이를 현사의 오도기연으로 본다.

현사의 문하에 갓 들어온 초심자 한 사람이 현사에게 물었다.

"저는 이제 선을 시작하는 초심자입니다. 선문(禪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일러 주십시오." 그러자 현사가 물었다. "저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는가?" "예, 들립니다." "그 물소리를 따라 가게나."

어느 날 현사가 대중들에게 말했다.

"수행자의 본분은 중생을 교화하는데 있다. 다음 세 종류의 불구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교화하겠는가? 장님은 주장자를 세워 보인들 보일 리가 없고 귀머거리에게는 입이 아프도록 말을 해줘도 들을 수가 없으며, 벙어리에게는 말을 시켜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교화해야 되겠는가?"

이때 한 스님이 이 말을 듣고 운문문언(雲門文偃:864~949)을 찾아가 이 말을 전하고 물었다.

"장님과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교화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문언이 절을 하고 일어나는 스님을 주장자로 때리려 하였다. 그러자 물은 스님이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장님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가까이 오라 하였다. 스님이 앞으로 가까이 오자 "귀머거리도 아니구나." 그리고 또 물었다. "어떤가? 알겠는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 벙어리도 아니네." 이 말을 들은 스님이 귀가 번쩍하고 눈이 열렸다.

중생 구제, 보살에게 큰 즐거움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㉓ 생을 받는 것이란

菩薩思惟。受生者有二種樂。一者救眾生樂。二者解脫樂。我云何捨二種樂取一種樂。菩薩思惟。一切凡夫盡共有一切種智性。一切種智凡夫易得˚以是故我愛凡夫不愛解脫。菩薩思惟。隨有苦?生處悲心得生悲得增長。以是故。我愛有中。菩薩語悲心言。汝使我得ßq淨增長。使一切眾生盡得ßq淨盡得增長。菩薩語悲心言。眾生在苦ㅿ百千眾苦之所逼迫。今日使眾生必得安樂與我成辦此事。菩薩語悲心言。眾生ㅿ愛所縛ㅿ死所攝。見世間無歸無依ㅿ救眾生故受種種苦。菩薩思惟。我愛大丈夫。見有眾生墮在苦中捨涅槃樂。ㅿ安樂眾生自勉勵此事。菩薩思惟。向救眾生得無生忍決定智得授記別。得授記別者我今供養恭敬。菩薩思惟。佛得遍淨眼。使我現前合掌請佛。願授我記。

번역 | 보살은 생각하기를, "생을 받는 것에 두 가지 즐거움이 있나니, 첫째 중생을 구제하는 즐거움이요, 둘째 해탈의 즐거움이라. 내가 어찌 두 가지 즐거움을 버리고 한 가지 즐거움만 취하랴"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일체 범부는 모두 일체 종류의 지혜 성품이 있어 일체종지를 범부가 쉽게 얻나니, 이로써 내가 범부를 사랑할지언정 해탈을 사랑하진 않으리라"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고통 받는 중생이 있는 곳을 따라 자비심으로 생을 받고 자비심을 증장시키리니 이렇게 내가 중생을 사랑하리라" 합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말하기를, "그대가 나로 청정함을 증장시키며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다 청정을 얻게 하며 다 증장시키누나" 합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말하기를, "중생이 고통 받되 백천의 중생이 고통과 핍박을 받는데, 오늘날 중생으로 하여금 반드시 안락을 얻게 하며, 나와 더불어 이 일을 분별케 하리라" 합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말하기를, "중생은 애욕에 얽매인바요 죽음에 끄달린 바라. 세상을 보건대 귀의할 데가 없거늘 중생을 구제하려는 것은 가지가지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는 대장부를 사랑하노라. 중생이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을 보면 열반락을 버림이라. 중생의 안락을 위하여 스스로 이 일을 권면하노라"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중생을 구제하려 무생법인을 얻되 결정코 지혜로 수기의 기별을 얻으리라. 수기의 기별을 얻은 이를 내가 지금 공양하고 공경하리라"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두루 깨끗한 눈을 얻으셨으니 나로 하여금 현전하시는 부처님을 청하여 합장하게 하시고 나에게 수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해설 | 중생에게 생을 받는 다는 것은 괴로움일 것이다. 그러나 보살에게도 괴로움일까 하는 생각을 한다. 중생의 생은 '애별리고'와 '원증회고'와 '구부득고'와 '오음성고'인 사고(四苦)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보살은 태어난다는 것에서 괴로움 보다는 '중생을 구제하는 즐거움'과 '해탈의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즐거움을 말한다. 네 가지 괴로움인 사고(四苦)인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괴로움', '미운 이와 다시 만나는 괴로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색,수,상,행,식에서 생기는 몸과 마음의 고통' 따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그러니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과 염려도 따라붙을 겨를이 없다.

그리하여 보살은 스스로에게 자비를 가르치면서, 스스로 가지는 발원의 힘으로 산다. 발원품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스스로 열반락에 들려 수행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려 무생법인의 원력을 세운다. 보살에게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닫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발원이다. 다시 태어나야만 중생을 구제하는 즐거움을 맛볼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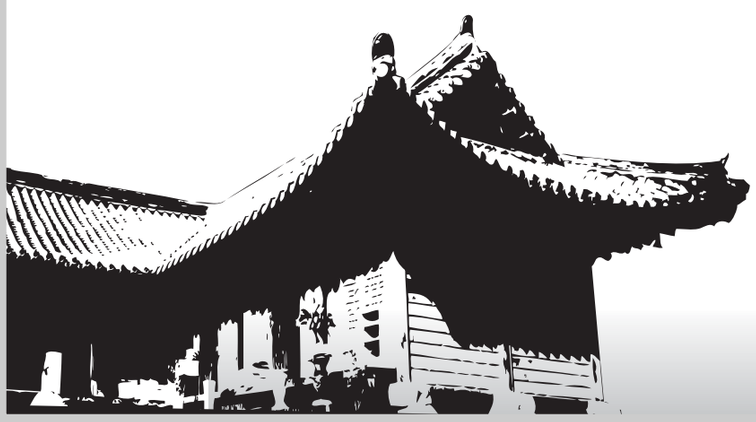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재가지도자 '전법사' 저출가 대안

〈轉法師〉

제1회 혜원정사 시민포럼서 전법 의미 되새겨

출가자 감소가 극심해지는 현대사회에 단순히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에 전하는 전법 포교의 역할을 넘어 재가자들이 직접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포교사들이 일선 포교현장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하고,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할 때 효과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재가지도자 차원의 '전법사(轉法師)' 필요성이 대두됐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12월 10일 혜원정사 교육관에서 '제1회 혜원시민포럼-가까이 더 가까이, 전법의 동행'을 개최했다.

이날 '전법사의 현실적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백도수 능인대학원대 교수는 "이전의 전법사, 법사는 법을 설하고 전하는 자라는 사고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금 전법사는 시대 흐름에 맞춰 개인, 단체,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정법을 실현하는 동행자로 자리매김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가 중심, 사찰경영 중심의 불교가 전문가 중심의 불교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재가전문가 양성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시대에 부응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혜원불교교육원의 교육방향은 새로운 희망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현재 혜원불교교육원은 자체적으로 전법사(轉法師)를 양성 중이다. 혜원불교교육원 전법사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자기 수행) 5년과 실천과정(깨달음의 사회화) 5년, 총 10년이 소요된다. 전법사 과정은 기존 종단에서 운영하는 포교사 양성 과정을 수용·계승하되 1년 과정인 부동품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무분별한 포교사 확대를 막고, 더욱 체계적인 전법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감소세 극심한 출가 현실
轉法師, 양성은 미래 해답
재가지도자 10년 과정 운영
"新 전법시대 문 여는 열쇠"

백 교수는 일반적으로 재가자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사회 곳곳에 불교를 전하고 일반인에게 다가가기 좋은 구조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장례 전법사, 돌보미 전법사, 인공지능 전법사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고 계층화·분업화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법(轉法)의 교학적 토대'를 발표한 조준호 고려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초전법륜경〉을 보면 붓다는 전법(傳法)이 아닌 전법(轉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부처님의 전법 목표는 중생의 이익과 복지, 행복이다. 전법륜은 전면적이고 역동적인 대사회적 행복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포스트세속화 시대에서 재가불자 지도자상 정립'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재 불자는 △물질자본 중심 불교의 기업화 △공동체 책임망각, 각자도생 △권승의 권력 및 재정 독점 △깨달음 지상주의 △명상 치유 상품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불교 재해석 등 6가지 장애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가지도자는 초기 경전과 대승에서 말하는 지도자상을 넘어 21세기 오늘 현실을 극복할 조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산 혜원정사는 12월 10일 혜원정사 교육관에서 '제1회 혜원시민포럼-가까이 더 가까이, 전법의 동행'을 개최하고 전법사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포럼에선 △초기불교 문헌에 나타난 전법의 의미(조준호) △전법사의 현실적 구현(백도수) △포스트세속화 시대에서 재가불자 지도자상의 정립(이도흠)이 발표됐다. 논평은 혜원불교교육원장 각성 스님, 전법도량 의장 목종 스님, 윤종갑 동아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됐다.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출가하는 스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재가자 역할이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며 "전문 전법사, 바른 재가 지도자상을 제안하고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재가지도자 양성에 도움 줄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소외된 이웃에게 연탄 공양을…

조계종부산聯, 연탄불공회 봉사로 첫 출발

불자들이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연탄으로 공양을 올렸다. 이번에 마련된 연탄은 대강백 무비 스님의 후원금 500만원으로 시작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2월 8일 부산 금정구 서동로에서 33세대에 연탄을 전달했다.〈사진〉 전달된 연탄은 한 가구당 200여 장씩 총 6800장이며, 이 자리에는 회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정관 스님, 사무국장 능후 스님, 기획국장 석산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 학부모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여했다.

부산연합회는 무비 스님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한 성금 500만원을 바탕으로 연탄불공회를 조직, 금정구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 받은 가구에 연탄을 처음으로 전달하며 시작을 알렸다. 연탄을 배달한 부산 금정구 서동로 일대는 영세민 주거 밀집구역으로 한 겨울 추위를 연탄으로 이겨내야 할 만큼 열악하다.



회장 심산 스님은 "추운 겨울 불자들의 자비행으로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자"고 관심을 당부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현재 연탄불공회 후원금 모금을 진행 중이다. 후원 계좌는 부산 101-2050-6594-01(연탄불공회). (051)501-7554 하성미 기자

동곡당 일타 대종사 18주기 추모다례

동곡당 일타 대종사의 18주기 추모다례재가 12월 9일 팔공산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 템플스테이관 육화원서 봉행됐다.〈사진〉

부도탑, 조사전 참배 후 △종사열반 △헌향 △헌화 삼배 △생전육성 법어 △행장소개 △문도대표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추모재에는 회주 법타 스님, 관장 돈명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은해사 신도회, 총동문회, 선화여고 학생, 교직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유지를 되새겼다.

동곡당 일타 대종사는 1929년 친인척 가운데 41명이 출가한 신심 깊은 불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1942년 고경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동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은 뒤 해인총림 율주와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거쳤으며, 지난 1999년 세수 71세, 법랍 58세로 원적에 들었다. 청정한 수행가풍 진작을 위해 평생 계행을 실천한 스님은 선·교·율을 두루 갖춘 수행자로 한국불교의 선지식으로 추앙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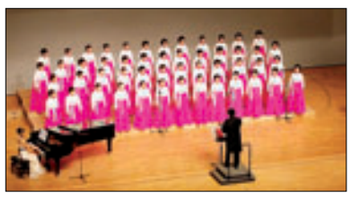
손문철 대구지사장

삼광사 화엄합창단 30주년 화합 하모니

부산시민 '어울림콘서트'

삼광사 화엄합창단(단장 정임숙)은 12월 12일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향연 어울림콘서트'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30주년을 기념했다.〈사진〉 콘서트는 바라춤 공연으로 문을 열어 화엄합창단의 무대와 초대가수 한서경, 삼광사 어린이합창단 및 평양민속예술단의 특별무대가 진행됐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울림의 소리로 불법 포교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천진불이 들려주는 맑은 法音

제2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1월 13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서

천진불들의 맑은 법음을 세상에 전하는 무대,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가 열린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성원, 이하 합창단연합)는 제2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1월 13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합창단연합은 합창단을 통해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하고, 불교문화 확산에 일조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에 발맞춰 최근 부산지역에 어린이 합창단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첫 대회에는 4개 사찰이 참가했지만 올해 2개 사찰이 확대 동참해 총 6개 팀이 갈고닦은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지난해 대회 이후 대광명사와 안국선원 교육관이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해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제1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당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합창제 참가 사찰은 △부산 관음사 단이슬어린이합창단 △부산 대원사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 △함양 서암정사 상림어린이합창단 △제주 약천사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 △부산 홍법사 동림어린이 합창단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합창단이다. 참여 어린이는 총 250여 명이며 참가하는 자모 회원은 대략 700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회장 성원 스님은 "안국선원 교육관을 비롯한 여러 사찰이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어린이 합창단을 통한 불교활동 및 포교를 위해 가입을 독려 중"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 영도 대원사(주지 담화림)는 12월 9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회 선재들의 구법행-대원선재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주지 담화림 스님은 "단원 대부분이 삼귀의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구해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했다"며 "올해 여러 공연 및 행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며 홍포하는 합창단이 자랑스럽다"고 소개했다.

대원선재합창단은 2015년에 창단했다. 이후 활발한 문화 공연 및 불교 가르침으로 어린이 포교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여성불자회, 정관희 후원회장 위촉

부산 불교계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여성불자회가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다가올 2018년 무술년을 맞아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이하 여성불자회)는 서면 유원오피스텔 더존 뷔페에서 '2017년 송년법회 및 정관희 후원회장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회에는 왕선자 회장을 비롯해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백명숙 부산파라미타협회장 등 회원 5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2017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내빈들의 격려사 및 축사로 진행됐다. 이어 한 해 동안 부산여성불자회 및 불교계를 위해 노력 봉사한 회원 13명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 특히 여성불자회는 정관희 후원회장을 새롭게 임명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왕선자 회장은 "정관희 후원회장을 새롭게 부산여성불자회에 모신 것은 정말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부산 불교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면서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감사드린다. 더욱 힘차게 정진하는 한 해가 되자"고 격려했다.

한편, 여성불자회는 청소년 장학 사업을 통한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군법당 및 교도소에서 자비나눔 및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원명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설산

감찰원
감찰원장 석월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법주

포교원
포교원장 석도일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광

교육원
교육원장 석유심

교구종무원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충북종무원장 석초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총 무 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지혜
총무부장 석화성
교무부장 석지담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문 도 회
문도회회장 석법현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문도회감사 석지혜

중 앙 원 회
전 원 장 석도현
전 회 장 석지현(경주)
전 총 무 석 정
전 도회회장 주
종 회 회 장 정
무 원 장 일
종 사회회장 대
종 원 장 혜
전 회장 한

일시 2 1 1월12일금 일 전1 시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본 총 원 사 금 ,
시 총 원 시

“스님 떡볶이에 희망 담아요”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

“스님이 만든 빨간 떡볶이를 먹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진안 광명사 주지 송운 스님〈사진〉은 지역에서 ‘떡볶이 스님’으로 통한다. 군부대나 어린이관련 행사를 찾아 어김없이 떡볶이를 만들어 나눠주기 때문이다. 송운 스님은 사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양식을 담당하던 일류 요리사였다. 출가 이후 요리사 경력을 살려 봉사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어린이들과 젊은 군인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 봉사활동에 나섰다.

스님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떡볶이 메뉴를 선보인다. 자극적인 매운 맛을 좋아하는 군인들을 위해서는 고추장 떡볶이를 제공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치즈 떡볶이나 카레 떡볶이, 여기에 강정 떡볶이를 추가하기도 한다. 스님의 뛰어난 요리 실력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송운 스님이 떡볶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진안 시골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간간이 떡볶이를 만들어 대접해오다 사형인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의 권유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요즘 평균 월 2~3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스님이 올해 ‘스님 떡볶이’를 위해 사용한 떡볶이용 떡은 800kg에 이른다. 300명분의 떡볶이를 만드는데 20kg정도의 떡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송운 스님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스님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설날 무렵이면 진안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22개 마을 회관에 80kg의 떡국을 대접해오고 있다.

송운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들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만 바라봐도 매우 흡족하다고 한다. 포교의 한 방편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단지 그들이 맛있게 먹고 스님 떡볶이를 기억해주기만 해도 고마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직은 먼 훗날 이야기지만 광명사 주변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소박한 꿈입니다.”

송운 스님은 이 꿈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이미 2007년에 합격했고,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중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복지시설을 설립하는 꿈을 꾸게 된 셈이다. 최근에는 농촌지역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새터민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강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식 조리 기술을 가르치면 한국사회에 보다 더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요리를 접목한 포교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합니다.”

이 같은 스님의 꿈은 태고종 전북종무원에 설립되는 태고불교문화대학에 사찰음식 조리과가 개설될 예정이라 점차 무르익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하겠지만 어린이들과 관련된 분야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동량을 제대로 키워내야 하니까요. 스님 떡볶이가 앞장서 포교하겠습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왼쪽 첫 번째)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 김장을 담그며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빨간 양념과 버무린 따뜻한 情

전주불교연합회, 소외계층에 자비 김장 나눠

전주지역 불자들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위해 직접 김장을 담가 전달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전주지역 사찰과 불교단체로 구성된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진성)는 12월 13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자비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참여한 사부대중은 1천 포기의 김장김치를 전주시 금아동 지역의 홀몸어르신 30명과 장애인 복지시설인 금산백련마을, 서원노인복지센터, 무료급식소인 생명평화밥상,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했다.

김장김치 나눔행사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총무국장 송운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보문사 원감 혜원 스님, 연분암 지선 법사, 곽인순 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안준아 룸비니산악회장, 전북불교대학,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전주불교청년회 등 스님과 재가불자 50여 명이 동참했다.

진성 스님은 “전주지역 사찰과 불자들이 추운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비의 김장김치를 전달받은 김찬우 금산백련마을 원장은 “올해 김장김치가 부족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전주불교연합회에서 자비행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지난 4월 공식 출범한 전주불교연합회는 종단, 계파, 승속을 초월해 지역불교 중흥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전주지역 사암과 재가불자 연합단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교사 역량 一新 나서자”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12월 9일, 포교사전진대회

광주지역 포교사들이 2017년도 활동을 보고하고 한 해를 마무리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윤중근)은 12월 9일 광주 수자타에서 ‘불기2561년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전진대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며 왕성한 활동을 한 포교사에 대해 시상했다.

식전공연과 법요식, 시상식 등이 진행된 행사에는 현봉 스님(前송광사 주지),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노휴 스님(조계종 포교국장), 전남 4개 본사 포교국장 스님들과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을 비롯해 윤중근 단장, 광주전남지역 포교사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재상 안수길, 포교사단장상 장흥수, 행복바라미공로상 이영현, 지역단장상 유준모 · 이동호 포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포교사전진대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한 해 활동을 정리하고, 새해 포부를 다지는 모습.

현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는 포교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늘 한결같은 마음을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중근 단장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우리 포교사들은 30여 개의 팀을 갖춰 포교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단 화합과 단결로 환의 · 감동의 포교를 이끌어내고, 포교사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종단을 외호하는 전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분야별 팀을 활성화해 포교사들을 일깨우는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은 △염불포교팀 △군포교팀 △다문화팀 △사찰문화해설팀 △자원봉사팀 △무소유실천팀 △문화예술팀 △병원포교팀 △어린이팀 △음성포교팀 등을 운영하면서 장례식장 염불봉사, 군법당 지원, 교도소 교정활동,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불교대학 운영, 병원 정서지원, 사찰문화해설, 어린이법회, 합창단, 지역 불교단체 및 사찰행사 지원, 연합봉축행사 활동 등을 펼쳐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희망 가득 한국불교 함께 노력해 만들자”

도법 스님, 금산사 송년법회서

금산사가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불교발전을 기원하는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주지 성우)는 12월 10일 전주 혁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연 전법도량 수현사 3층 큰법당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300여 대중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 도법 스님은 송년법어를 통해 “최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불교는 아직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비약적이고 혁명적인 접근으로 한국불교가 인류의 희망이자 방향타가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이어 “전주 혁신도시에 전법의 깃발을 세운 수현사가 전법의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 내는 도량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사는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새해 주요 종무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정유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각사, 어린이법회 창립

심리운동 프로그램도 운영

광주 원각사(주지 현고)는 12월 9일 미래 포교의 주역인 ‘원각사 어린이법회’ 창립하고 첫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창립한 어린이법회는 연중 스님을 지도법사로 3명의 지도교사와 1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정기법회를 연다.

현고 스님은 창립 법문을 통해 “아이들은 어려서는 부모가 있어야 하지만, 어른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부처님 말씀 필요하다”며 “늘 즐거운 마음으로 절에 다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어린이 정기법회에는 전문심리상담가들이 참여해 놀이를 바탕으로 한 심리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명산정사
- 주 소 : 전남 곡성군 오곡면 명산리 445
- 법 명 : 환진 (이미숙)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려라. 도의 길을 가는데에는 인욕이 가장 으뜸이니라.

– 법화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 묘 방 편 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속히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 법 전 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 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 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산소송사재판,이혼수,낙태유산,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천기누설)
010-4014-8822

불자가정 국제결혼 상담 (초.재혼)
결혼의 조건으로 개종을 서약하는 동남아의 형태, 이교도들 만행을 볼수없어 스님이 직접 중매함. 동남아에 거주하는 스님들 5개국연계 (불교인만가능)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불교인의 결혼을 성사시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사찰과 연계하여 성사시킴
인터넷전화
070-4001-9865

보담스님 하늘소리
영가천도. 점안 각종
의식. 바라, 작법.
살풀이. 연화무
010-9229-9899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사찰 포교원 부전
서울 경기지역 전문 안내
경기지역 요양원을 안내
철거 인테리어 상담
010-5381-1419
– – – – – – – – – –
참신한 공양주 찾습니다
010-9421-0730

2018년 내 운세
신비한 타로점으로
전화 상담드립니다.
타로수강생 모집
한달만 배우면
2018년 운세 상담가능
010-2748-6321 향수해 보살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
010-4415-5780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0-2078-9595

기도처, 공부하실 곳이
마땅하지 않으신
비구니스님 누구나.
숙식 무료제공 (5명 선착순)
* 본 사찰에서 기도,
부전스님으로 있을 수도 있음
(상담 후 결정)
010-5212-4533

배우자 구함
남 64세, 회사원, 여행 취미
성격 부드럽고 진실한
아들 없는 홀로 되신 여성
인연 바랍니다.
(북한 여성 환영)
010-4074-3073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命理學. 실전통변비법
命理學 & 神通術 (스님직강)
기초반, 실전반 모집 (1:1 맞춤 개인교습)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010-8427-6199. 070-4643-6199

1시간이면 비 법 전 수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사 찰 행 사 전 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수 인 작 법 사 주 팔 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2)918-5554.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 환영, 55세 이하)
041-673-8385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 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 및 사암만이 기부금 행위 등 종교활동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 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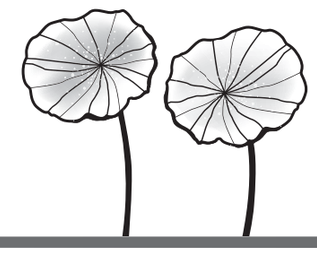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과 거짓말을
일삼으며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 중본기경 –



영주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요사채. 산신각. 토지 27.000㎡
- 남향. 교통 편리한 산중사찰
- 양도 : 5억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사찰부지 ◎ 위치 : 경기도
◎ 대지 : 70평, 부지 400평 ◎ 대지 : 2200평
◎ 합 470평 ◎ 인법당 : 40평, 차량진입
◎ 산 및 바다조망 ◎ 계곡 및 산속
◎ 양도가 : 1억 1천 ◎ 양도가 : 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영주 사찰(급) 안내
- 한옥 법당. 요사채 등
- 토지 6.000㎡. 영주IC에서5km
- 뒷편산사찰. 기도도량
- 수행터로 위치 좋음
- 양도가액 : 4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103-35호 서울에서 1시간거리 감곡IC 10분거리 2018년 전철개통 예정
- 대지 184평, 답 290평 전체 474평
- 삼존불외 약사 여래불 약사기도원 모두 목불부처님, 아미타불, 관세음불, 지장불 약사여래불 삼성각 약사여래기도 도량
- 지하대공 116m, 황토방 건물 약 60평
- 전체 몸만 오시면 됨, 완벽함, 모든것 일체, 납골부지 포함
- 가액 : 2억 6천

010-6674-1356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4천 8백 만원

010-729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 입주, 몸 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철역 앞 역세권
- 전용면적 100명, 최신식 현대 최고인테리어 제반시설 완비,
- 보증금 3천만원, 월 220만원 시설비 상담 후

010-5800-9331

암자(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마곡사 근처
- 면적 100평
- 특징 : 큰스님 공부하셨던 아담하고 예쁜 암자
- 조용한 토굴
- 가액 : 1억원

010-3566-0385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화장실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5천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연락처 010-8697-2251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불교 고장 김해 부득이 임대하고저 합니다
- 큰 대로 옆, 건물 65평
- 방사 3칸, 공양간 1칸 화장실 남, 녀 각1개, 주차완비
- 아미타 삼존불, 천수관음 포대화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절충가능

010-7702-629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884-0122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 상가 : 4층, 5층, 평수 70평
- 층수 : 4, 5층 법당 및 요사채
- 가액: 전세 1,500만원, 월 80만원
- 현재법회 중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비품 등은 보시고 협의하여 결정

010-3305-531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 평수 : 400평
- 법당, 산신, 용왕, 공양간, 스님방, 건물6동, 집기일체 완비 법회 바로 할 수 있음
- 사찰 앞 아름다운 연못
- 꼭 하실분 연락바람
- 가액: 보증금 2천, 월 50만

010-3850-717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5019-5385

사찰안내 및 전세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 총면적 : 530평
- 법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창고
- 가액: 7억, 전세 : 2억

연락처 010-2702-0303

암자기도도량 안내
- 위치 : 조용하고 아늑한 지리산
- 계곡 기도도량 총 387평
- 법당 1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양도가액: 토지316평 7천만원 전세 : 3천만원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길 99-30 (약사암)

연락처 010-9036-2131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 8백 평
- 가액: 1억 8백만원

010-2016-6281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도로에서 등산로 20분(950m)
- 법당1, 요사채3, 황토집 4동
- 종교용지 전답 800평 (깊은산골 청정도량)
- 가액 : 1억 8천(조정가능)

016-614-0066

주거 또는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평수 230평, 건물 30평
- 계곡물 사시사철 흐릅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8943-14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포항시 장성동 아파트상가 3층 (100평)
- 법당 30평(삼존불,신중다.영가단.원불108불)
- 공양간 방3개 옥탑방1개 진견실 종무소 냉난방 시설 완비
- 몸만 들어오면 됨
- 보증금 : 일천만원 월60만원

연락처 : 010-8181-5011
010-3004-997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망미동
- 최고 요지
- 원불 : 아미타, 관세음, 지장
- 소불 200
- 소임관계 급, 즉시법회
- 가액 : 보 2천 38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695-106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 완벽한 법당시설 (대웅전 시설)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합니다.
- 부득이 임대하고자 합니다
- 인연있는 분 연락 주세요

010-3169-5869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땅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 의료관광 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2억 1천) 안고

010-9906-3631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010-4953-17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 29평반(단청완료)
- 화장실3평, 기와집, 산신각5평 요사채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 공양실 20평, 기타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1동)
- 가액 : 4억 8천

010-2591-4736

목조 황토 주택
- 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 대지 190평, 건물 22평
- 정각 1동 남향
- 소나무 숲아래 전원주택 기도원. 암자 기존주택
- 찜질방(방 4개), 텃밭
- 2017년 그린 현대식 리모델링
- 가액 : 1억 4천 7백만원

010-5937-2453
010-3831-7070

도심 속 작은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노산북8길 46-2
- 건물 : 밖-3층, 대문안-2층, 반지하1층
- 대지 50평, 전망매우좋음
- 법당: 흑단 입불: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있음
- 강개 : 2억 5천만원

010-3956-5639
055-221-7509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청림동
- 상가 2층 80평 단독사용
- 삼존불, 소불 탱화, 인등 법당, 사무실, 공양간 스님방, 화장실 3개 주차양호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보시고 결정

010-2857-2811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 투자가치도좋음(대한방직150m거리143층 초고층타워와아파트 신축예정)
- 위치 : 전주시내.앞도로변.좌로4차선.앞으로 2차선
- 주변환경.전북경찰청.도청.아파트.상가.주택. 밀집지역.공원.천변산책로
- 대지.61평.뒷마당있음.건평90평.각30평.3층건물
- 1층.방3개해우소/2층.법당.수미단원목조성. 소불300불.연등.700.인등.영가인등 해우소 3층.주택.방3개.화장실2개.외부.내부 뼈대외 올리모델링 시시카메라10대.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4억3천만원(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
- 요사채 : 공양실, 방 2칸
- 가액 : 2억 7천

010-3508-7710

토굴 분양 안내
- 총 7개동(내부시설 완벽) 1개동 대지면적 47평, 건물면적 10평
- 분양가7500만원(부동산4000,동산3000)
- 남해바다.산.사찰. 풍광이 어우러진최고의 명당
- 황토구들장구조 • 위치에 분양가 조정됨
- 경남 남해군남면홍현리 581-2(무지개로 81번길23-34)

연락처 : 010-5352-9245
010-9036-2131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라오스 스님들, 사회 혁신운동 눈길

더마닐라타임즈, 승가 명상 및 윤리 교육 조명

1975년 이후 승가 역할 축소
위빠사나 명상, 불교 윤리 교육
공동체 운동에 중심 역할 소개


숲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라오스의 스님들. 사진출처=위키미디어

더 마닐라 타임즈(The Manila Times, 이하 마닐라타임즈)는 12월 13일 인터넷 뉴스를 통해 라오스 스님들의 환경운동 전개를 소개했다.

마닐라타임즈는 '라오스의 스님들이 친환경적인 발전을 도모하다'(Buddhist village monks in Laos initiate environmentally aware development)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환경을 의식한 라오스 스님들이 도덕교육과 명상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 경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운동을 주도하는 등 농촌의 조용한 혁명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닐라 타임즈에 따르면 이 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은 비엔티안 수도에서 남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캄모아네(Khammouane) 지방의 농북(Nongbok) 지역이다. 이 지역 스님들은 사일리(불교 윤리)와 좋은 삶을 누리는 길(생계보장), 그리고 환경보호를 교육하고 있다. 스님들은 지역민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생태와 복지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피탁 솜퐁 스님은 "마을 주민을 초대해 명상을 가르칩니다. 이는 어떤 활동을 하기 전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라며 "자신의 활동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다시 이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게 합니다"고 설명했다.

피탁 스님은 마을 풀뿌리 개발 프로젝트인 'Lao Buddhist Fellowship Organization(LBFO)'의 교육을 받은 스님 중 한명이다. 피탁 스님은 2013년 비엔티안에서 연수를 마친 후 마을로와 마을 주민들에게 위빠사나 명상을 가르치고 이와 함께 불교 윤리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

피탁 스님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불자들의 자원봉사도 강조한다. 마을 접근도로를 청소하고, 농사 퇴비와 비료를 함께 생산할 뿐만 아니라 유기농 원예를 도모하는 것 말이다.

이러한 활동은 라오스에서 스님들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에서는 1975년 라오스 건국된 후 스님들의 전통적인 역할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불교의 가치관은 라오스 사람들의 생활 방식, 전통 및 문화에 뿌리 내리고 있다.

마닐라 타임즈는 "라오스 스님들은 불법에 따라 불교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사람들의 영적 고통을 덜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 공동체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자비행을 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닐라 타임즈는 "의약품과 같은 현대사회의 물질적인 혜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라오스 승가에서 기존의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닐라 타임즈는 끝으로 "라오스 사람들이 고난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교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는 고난으로 간주된다"며 "환경의 악화는 고통의 한 이유이며,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숲을 보존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올림픽 앞둔 日사찰, 신용카드 결재 도입

日정부의 도쿄올림픽 관광정책 보조 맞춘 결과


일본 사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도입됐다. 사진출처=The Japan Times

일본 사찰들이 2020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사찰 입장료 및 각종 사찰 내 결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더 재팬 타임즈(The Japan Times)는 12월 7일 인터넷 뉴스 '일본의 관광산업은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용하고 있다'(Japan's tourism trade embraces portable credit card terminals)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불교계의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 추세를 보도했다.

이 뉴스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20도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추가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률이 저조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신용카드 등 무현금 지불 비율을 10년간 현재 2배인 40%선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정책에 따라 와카야마현 고야산에 위치한 공고부지(金剛寺)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입장료를 신용카드 결제로 받기 시작했다.

더 재팬 타임즈는 "지금까지 일본 내 관광지는 신용카드를 받기 꺼려했다. 왜냐하면 소액결제의 경우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와 함께 금융앱 등을 활용한 결제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결과가 나오며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덕현 기자

허리케인 하비 피해자 사찰서 치료받았다

지난 8월 텍사스 주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자들이 한 사찰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라이언스로어'는 12월 13일 "633여 명의 피해자들이 휴스턴의 사찰에서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때 사찰서 피해자를 돌본 것은 사캬 케어재단, 해리스 건강 단체, 원격 진료단체였다. 이들은 텍사스 사원서 기본 의학적 진료와 더불어 치과, 안과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특히 사캬 케어재단은 부처님의 정신과 이상향에 입각해 불교의 정신에 충실한 단체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휴스턴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예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됐지만 휴스턴 사원서 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캬 케어재단의 책임자인 캐서린은 "부처님의 가피로 많은 봉사자를 모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中정부, 티베트 내 60명의 '生佛' 승인

달라이라마 영향 줄이기 나서


중국 정부가 티베스이 60명의 스님을 '생불'로 승인했다. 사진출처=buddhistdoor.net

중국정부가 티베트 내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12월 14일 '달라이라마의 영향력 감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생불 정책'(Chinese choose 'Living Buddhas' to curb Dalai Lama influenc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에 대응하기 위해 티베트 내에 약 60여 명의 '생불'을 승인했다.

중국정부는 10년 전부터 티베트 내에 '생불' 선정 작업에 들어서 최근 국가종교행정부(SARA)가 60명의 생불에 대한 교육을 승인했다.

중국 종교위원장인 주 웨이 쿤(Zhu Weiqun)은 달라이 라마가 티벳 불교와 민족적 단결을 위한 활동을 위해 생불의 환생을 활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목표를 밝혔다.

주 웨이 쿤 위원장은 "일부 티베트 지역의 불교사원은 종종 자신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이른바 생불을 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불 지정은 티베트 불교에서 종파 지도자의 입적 후 이뤄진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중국에서만도 1300명의 생불이 승인됐다. 특히 16세 이하의 7명의 생불이 공산당이 실행하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 훈련을 받고 있다 .

중국정부는 생불을 뽑기 위해 중국은 살아있는 붓다를 선출하고 승인하며 각 티베트 분파에 고위 당원을 포진시키고 있다.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중국불교협회는 승계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SARA에 보고를 한다. 이는 하나 이상의 생불이 한 종파에서 있을 때 주로 갈등이 발생한다. SARA는 친 중국정부 인사를 승인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中아시아 최고 높이 목탑 불타

명나라 목탑 영관루, 10일 소실



명나라 때 건립된 아시아 최고 높이 · 불교 목탑 영관루(靈官樓)가 10일 사찰 화재로 전체 소실됐다고 현지매체들이 보도했다.

12월 11일 중화권 매체 대기원시보(大紀元)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四川)성 미엔주(綿竹)시 구룡사(九龍寺)에서 갑자기 큰 불이 나 16층 높이 영관루 전체가 불탔다.

쓰촨성 당국자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불길이 모두 진압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다면서 화재 원인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영관루는 명나라 말기에 만들어진 300여년 된 목탑이다.2008년 쓰촨 대지진 당시 파손돼 약 20에이커(약 2만4000평) 면적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화재 당시에는 인근 대웅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달라이라마 지지하던 美스타 타계

보카라 레젠데르, 12월 3일 암으로



미국 언론 'SF게이트'는 미국의 TV 진행자이자 사회주의 운동가던 보카라 레젠데르(Bokara Legendre · 사진)가 사망했다고 12월 13일 보도했다.

올해 나이 77세 였으며 사망일자는 12월 3일, 원인은 갑상선암으로 추정했다. 레젠데르는 남미에서 재벌가의 상속녀로 태어났지만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에 깊이 귀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회 운동을 진행하며 사회의 존경을 받기도 했다. 여러모로 사회에 귀감이 되던 그녀의 죽음에 일반 시민뿐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애도를 표했다.

평소 우아함을 잃지 않던 레젠데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빨간 드레스를 입고 80파운드에 이르는 목걸이를 한 채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시마

격조 높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안내문

1. 무속의 영점, 신점이 아닙니다.
2. 주역, 타로, 사주, 점성술 등의 역술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순수하게 영적인 에너지만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는 기묘한 점술입니다.
4. 고도의 집중력과 강력한 에너지장을 떠올려서 보고 듣기에 적중률이 뛰어납니다.
5. 본인 점술의 최대 장점은 질문자가 물었을 때 두리뭉실하지 않고 깊이 있고 다양하며 상세하게 답변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 담 료 : 10분 이내 7만원, 20분 이내 14만원 .....
10분마다 7만원씩 분할결제 가능 (선불제)

상담가능시간 : 오후 1시 이후

연 락 처 : 010-9546-9797

시마(XIMA) 배상

황토와 편백



황토 편백 찜질침대 산사에 황토구들을 놓을 수는 없을까?
황토와 편백나무는 면역력 증강과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잠이라도 푹 주무시고
참선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감기 없는 겨울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 현금 특별 판매가 : 135만원
구입처 010-7358-0380
배원호 합장

황토구들 침대

온전히 현재 만날 때 자각 일어난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㉕



최근 연말을 앞두고 한라산 등반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사전 등반훈련을 해왔다. 마침 제주국제명상센터 뒤에 있는 '안새미 오름'을 연습의 대상으로 삼고 매일 1회 또는 2회씩 '오름(기생화산)'을 오르내렸다. 필자가 한라산을 마지막으로 다녀온 것은 근 20년 전의 일이었다. 그 후 마음속으로 수 없이 '한 번 더 다녀와야지' 하다가 지난번 산을 좋아하는 분과 의기투합하여 12월 15일로 날짜를 잡았다. 날짜를 정하고 나서는 '요가 니드라(깨어있는 잠)'를 할 때마다 '상칼파(각오)'는 "금년 중 한라산 정상에 올라간다"였다. 그 다짐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도 가끔 필자의 나이(71)를 떠올리며 '과연 정상까지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20년 전에도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겪었던 고통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후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나이는 물론이고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기어이 준비과정에서 탈이 났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나 할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던가, 준비가 너무 과한 탓이었는지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 허리와 무릎관절에 통증이 오면서 거동이 힘들어졌다. 다른 분들과 약속을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 몸의 상태가 이러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였다. 한의원에 다니면서 뜸을 뜨고, 침을 맞고, 찜질을 하면서 빨리 치유되기를 바랐으나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무엇이 나를 이런 상태로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훈련과정에서 이미 고통을 잉태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

하나, 필자 자신의 '체력에 한계'가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명상센터 뒤에 있는 오름은 그리 높지 않고, 다녀보니 만만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이 정도 오름의 높이나 소요시간의 8배에 이르는 한라산을 오르기에는 준비가 태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한 회에 두 번씩 오름을 올라가기도 했다. 그런데 요통이 있기 이틀 전 오른쪽 다리가 뻐근하였으나 두 번이나 다녀왔으니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것이 문제였다. 그것은 필자의 체력 한계를 나타내는 전조증상이었다. 5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명상센터 둘레에 있는 나무를 베고, 잔디밭에 자라는 잡초를 뽑는 일을 하다 보니 4일째 되던 날 잡초를 뽑다가 일어서는데 요통으로 일어서지를 못했다. 그 때도 일을 좀 과하게 한 탓이려니 하고 쉬면서 회복이 되었으므로 필자의 체력에 한계가 온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히 통증을 느낄 정도의 상태가 아니므로 가볍게 여기다가 탈이 난 것이다.

둘, 필자의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라고 착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필자는 평소 신체건강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한라산에 간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무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라도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다음 두 분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한 분은 빅토르 프랭클. 그의 나이 86세에 자신의 '노년'에 대한 인터뷰에서 "내게는 늙어 가는 것에 대해서 발버둥칠 일은 없다. 나는 어쩌면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도 떨어져 가며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속도도 떨어진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어느 것이나 그 동안 몇 십 년에 걸쳐서 얻은 인생의 경험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의 영향이다. 프랭클의 인터뷰가 갖는 의미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며, 살아온 과정에서 이룩한 어떠한 것도 훼손되지 않으니 나이 듦에 대해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의연해야 함을 말해준다. 필자는 이 분의 말에 흠뻑 빠졌다. 그래서 나이와 체력이 반비례한다는 자연의 진리에 저항하게 되었다. 다른 한 분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다. 그는 주변에서 "늙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시지요"라고 말하자 이렇게 반문했다.

"만일 내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한다면 결승점에 가까이 가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온힘을 다해 질주하는 것이 좋겠소?"

이 얼마나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대답인가! 이 두 분의 말처럼 노년의 삶에 대한 굳건한 의지는 노년을 살아가는 필자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 두 분의 말씀 이외에 또 한 분이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과제를 실행해오면서 그 과제를 완수하기도 하고 미결로 남겨두기도 하였다. 그런데 게슈탈트 심리학의 창시자 펄스가 "삶에서의 미결과제는 늘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삶을 무겁게 한다"고 한 말처럼 필자의 인생에서도 미결로 남겨진 과제들은 평생을 두고 따라다니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그래서 이번 산행을 결심한 것도 두 번 다시 인생의 미결과제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은 필자의 의욕을 높여주기는 했으나 실제 행위의 대상인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 "
> **미래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지금의 나'를 알아차려야 한다 명상적인 삶 살아 흔들림 없이 인생의 후반부서도 최선 다해야**
> "

셋, 필자는 아직도 '욕망이 일어나면 그것을 실행하려는 데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필자가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성취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은 필자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필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하여 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제주대학교 교수, 한국상담학회 회장, 그리고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에 이르렀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의식이 확대되면서 더 큰 세계가 보였고 그 길로 나아갔다. 그 길에서 성취를 이루고 나면 더 큰 길이 보였다. 지금까지 욕망으로 살아온 길은 늦거나 힘들어도 가고자 했던 곳에 도달했다. 그 길은 개인에게나 사회의 발전에 유익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명상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칠십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처럼 필자가 가고자 했던 길은 정신적인 길이었지 육체적으로 도달해야할 길은 아니었다. 육체는 정신적인 작용을 보다 건강하게 해주는 마차의 역할을 한다. 프랭클이 말한 성장이란 정신적인 성장이지 육체적인 성장이 아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한라산은 육체적으로 도달해야 할 그런 곳이었다. 그것도 금년 안에 한라산 정상에 가야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현재의 신체적 한계나 정신적 자만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필자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오로지 현재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은 매 순간 맞이해야할 대상에게 가 있어야 함에도 그 순간의 대상보다 지나간, 또는 다가올 대상에 주의가 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켄 윌버는 "이 현재가 정말 올바른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에 오롯이 머무는 대신 새롭고 더 나은 현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좇아 현재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체력의 한계'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오름에 올라가는 순간의 체력이 아니라 한라산에 올라갈 때의 체력인 미래에 가 있었다. 그러니까 체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강박감이 작용하여 연습을 더 하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라고 착각한 것은 마음조차 노인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 속에서 늘 젊은이 같은 사고와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필자를 지탱하는 동력이기도 했다. 그리고 '욕망에 집착'하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필자가 이루고자 한 것은 거의 성취했기 때문에 한라산 등반도 같은 맥락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필자의 몸과 마음, 욕망은 현재라는 눈앞의 사실을 극복하지 못했다. 현재를 놓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성취하기 어렵다. 지금 현재를 만나지 못함을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고통의 해소이며, 고통이 있기 전에 대한 자각이다. 물 한 모금을 마시더라도 우리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또는 잠시 후의 것을 만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은 바로 물이라는 대상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대상을 만나고자 한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도 '현재(오름)'를 자각하는 대신 이 자각이 일어날 '미래의 현재(한라산)'를 필요로 했다. 현재를 온전히 만날 수 있다면 미래의 현재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래의 한라산이 아니라 오로지 현재의 오름을 주시하는 길 밖에 없다. 현재를 온전히 만날 수 있다면 다가올 미래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

이제 등산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한 해의 마무리와 욕망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정해진 산행 날이 오면 필자의 몸과 마음이 어떠하든 의연히 맞이할 것이다. 디오게네스가 한 말처럼 인생의 후반부에 있는 필자는 전력을 다할 것이며, 나다니엘 호오돈의 '큰 바위 얼굴'처럼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여여(如如)할 것이다. 또한 공자가 말씀한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일흔에는 마음이 가는대로 해도 순리에 어긋남이 없다)'처럼 세상에 살되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삶은 오로지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힘, 명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 〈끝〉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밥타 죽순 식물성 탈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임해 밥타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임해]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2자
◀ 대북
▶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 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참 불교방송 RYUNDAI 현대미디어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177호 현대불교 A17
2017년 12월 20일(11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1년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마음이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실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 공부" 하지만 사실 공부라는 이름도 붙이지 말고,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그건 불쌍한 게 아니라 애처롭습니다. 여러분은 산 사람, 산 물질만 봐도 애처로운 일이 많은데, 죽은 영령들이 부모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마음, 애처롭게 끌고 다니는 그 마음, 세상에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뭐고 사랑이 뭐길래, 자식이 뭐고 부모가 뭐길래,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길래 그렇게들 인연줄이 질기고 질겨서 그걸 놓지 못해 붙들고 애처롭게 피를 흘리는지,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도 살고 있고 저 별성에도 살고 있다. 여기 모습대로 거기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그건 화신(化身)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육신이지만, 그 모습들은 화신으로서 모두 보현보살(普賢菩薩)로 화해서 영계들이나 산 사람들이나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化)해서 직속 왕래를 해 보세요. 얼마나 떳떳한가.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러죠?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빛보다 더 빨리 왕래를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은 기복으로만 만날 빌고 '아이고, 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뭐 또 죽을까 봐 그렇게 살려 달라고 애를 씁니까?

나는 이날까지 나 살려 달라고 빌어 본 예가 없어. 항상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팔랑개비 대만 쥐고 다녔다고. 그게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대만 쥐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내가 대를 쥐면은 나한테도 바람이 있지. 지수화풍이 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저절로 돌아갈 거라고. 나는 그 대만 붙들고 다녔기 때문에 내 육신이 고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을 안 했으니까 고통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우리도 악과 선을 다 놓을 수 있다면 또는 집안에서 병 문제가 생겼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엊그저께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 지금 간암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병원이냐고, 의사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난번 여섯 달 전에도 우린 그렇게 해서 스님한테 말씀을 했더니 스님이…." "난 모르는 일인데." 하니까, 스님이 "아휴, 나아야지. 자식들이 어린데 나아야지." 했대요, 글쎄. 그랬더니 나았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문제라고요. 나한테 물어서 되는 줄 아니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물론 '나무때기 시집을 보내느니 내가 가지.' 할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수해를 그렇게 원주에서 겪어 봤는데 병만 고쳐 주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아니야. 그건 잠시 잠깐 병이 나았으니까 잘 살겠지만 영원토록 끊임없는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이 그 업보를 스스로 녹이지 않는다면 항시 그런 게 닥쳐오니까 말이에요. 잠시 잠깐 그렇게 해 줬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런 소리도 듣기 싫다고, 응.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러분이 진짜로 어딜 가나 하다못해 돼지 새끼, 벌레 새끼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지, 누가 나를 믿으랬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예가 없어요. 자기 주인공, 즉 자기를 믿으라고 했지. 그저 생각이 없는 짐승이나 생각이 있는 짐승이나, 생각이 없는 영계나 생각이 있는 영계나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영령들, 그 애처롭고 참혹한 우리 산 넋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영령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이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영, 혼, 넋" 이렇게 부르죠. 이런 거는 업식으로서 많이 살던 습이 한데 뭉쳐진 그 덩어리라. 어떠한 업식이야. 그 업식이 영령들이야, 그게 다. 그러니 중생이라 이 소리지. 그 참혹한 꼴을 보세요. 내용적인 것은 다 말을 못하지만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생(四生)의 종류, 또 용도대로 그러한 문제가 덩달아 일어나고 있으니 사람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가, 저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보기라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업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중생이라면 이 다음에 죽어서 사람으로만 태어나라는 보장을 누가 하며, 또는 사람 속에서도 업식이 뭉쳐진 것이 사람인데, 사람 이 자체가 바로 중생들의 소굴이거든. 여기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참인데 사람도 못 된다면 부처 될 일은 까마득하지 않으냐 이거야. 부처의 뜻을 알려면. 그러니 누가 보장을 못합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여러분도 우선 병만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돼요. 죽든 살든 여러분이 '주인공' 하면 벌써 스님과 첨보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스님하고만 첨보된게 아닙니다. 저 은하계의 별성들이 다 첨보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 응. 한마음이라는 걸 소홀히 생각하고 조그맣게 쓰지 말고 좀 더 지혜로운 지각을 가지고서 좀 널리 쓸 수 있는 그런 아량, 지혜, 자비를 가지고 넓게 포용하라는 얘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하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에도 있지만, 몇백 년 전에, 아니 삼천 년 전이라고 합시다. 부처님께서 그때 방편으로 하셨으니까.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을 다 놔야 된다 하는 경도 있을 거고, 또는 계율을 아주 돈독하게 지키라 하는 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리를 다 알고 나면은 계율을 지키라고 말을 안 해도 범하지 않으니까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키는 게 돼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계(五戒)도 못 지켜요. 계율이라는 거에 걸려서 말이죠. 나는 오계(五戒)를 설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때에 따라서 부득이 살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살생이 아니다. 부모를 위해서 하다못해 물고기 한 마리를 죽였다 할 때에 그것은 내 살, 내 생명, 내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도리를 알라 이랬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괜히 남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 죽여서만 죽이는 게 아닌 일이 또 있죠. 남의 식구들을 몽땅 짓밟아 버리는 거, 하나 죽이면 식구가 전부 못 살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그런 경들은 전부 무의 법을 말했어요. 무의 법에서 말하고 유의 법에서 말하고 한데 합쳐서 현실로 내놓은 것이 법화경이에요. 또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입니다. 글자 수는 적지만 편집할 때 딱 간추려서 해 놓은 거죠,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읽을 때에도 뜻을 잘 알고 보면 거기에는 금강경도 들어 있고, 법화경도 들어 있고, 화엄경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또 아까 천수경, 뜻으로, 우리말로 풀어 놓은 거를 읽었죠? 그것이 전부 설법입니다.

그러니 '나를 깨닫게 해 주소서.' 하는 것도 바깥으로 하지 마세요.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천(天) · 지(地) · 인(人)하고 연결돼 있으니깐요. 천 · 지 · 인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세요. 전부 한데 있죠. 그것에서 알게 되면은 대천세계(大千世界)를 알게 됩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대천연화장불(大千蓮華藏佛)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미래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이렇게 삼세(三世)를 굴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휴, 스님!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때는 과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삼 년 과거로 돌아가는 수도 있고 삼십, 삼백 년 과거로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수명이 길고 현실은 수명이 짧습니다. 과거는 오백 년이라고 해도 되고 십만 년이라고 해도 되지만, 오백 년이다 하면 여기는 한

☞ A18면으로 계속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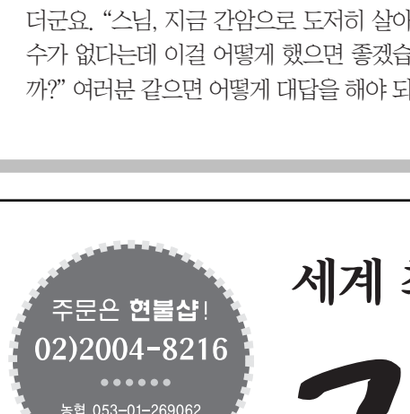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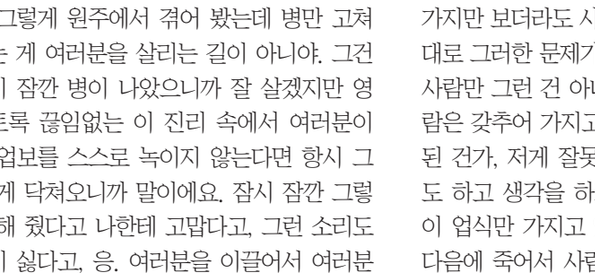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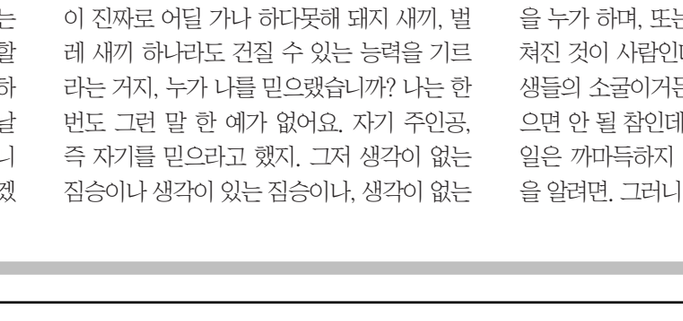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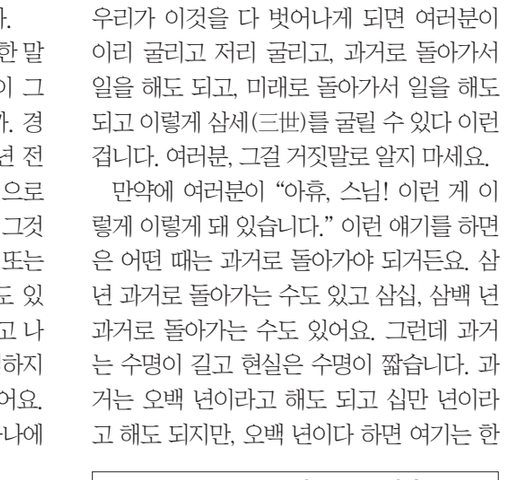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시고 계발하셔야 됩니다

☞ A17면에서 계속

달도 될 수 있고 일 년도 될 수 있어요. 보통 수명이 일 년이다 하면은 과거는 오백 년이라고 해도 돼. 또 거기서 일 년이다 하면은 여기는 하루밖에 안 돼. 또 하루라 하면 여긴 한 찰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찰나도 한 찰나가 없으니까 한 찰나라는 건 아예 그냥 없는 거를 말하고, 없기 때문에 한 찰나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림하는 데 걸음 떼어 놓으시는데 한 찰나에 떼어 놓으시죠?

그래서 과거도 떼어 놓은 발자취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 시작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 드립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현실도 없다 하는 것은, 이 공부는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마음대로 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삼세심(三世心)이 일심(一心)이요, 일심이 삼세심이니라. 그래서 사천세계(四千世界)가 바로 원심(圓心)이야, 원심! (주먹을 쥐어 보이시고) 그래 그것을 다 포용하면은 원심력을 얻어서 전체 구정토를 왕래하고 그 별성과 더불어 같이 운행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면은 바로 그것을 불(佛)이라고 해도 좋고 자유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어떠한 악의 덩어리가, 마음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선 보이지 않는 데 다니면서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있을 때 둘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이 바로 내가 된단 말입니다. 업식으로 몸뚱이가 뭉쳐졌다고 그랬죠? 즉 말하자면 이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스무 개, 백 개, 천 개, 백억으로 돼 가지고선 누구를 살리려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 가지곤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와 둘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이걸 참 어떻게 되짚어서 얘길 해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생활이 그대로 천체심성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사님들이 천체물리학을 연구하고 그러지마는 이것은 물질로써 연구하는 것이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옆에 누가 와 앉아 있어도 못 보는 걸 어떡합니까? 전자의 선배들이 지금 후배가 연구하는 데 와 앉아 있어도 몰라. 주욱들 앉아 있어도 몰라. 그럼 그 노릇은 어떡합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줄이라는 얘깁니다. 아는 마음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선배가 후배에게 참, '뒷받침을 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죠.

옛날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어느 의학 박사가 말입니다, 죽었는데, 참 그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무척 애썼는데 후배들은 도대체 그런 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어떤 남자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항상 공부하니까 그냥 그 박사가 그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 남자는 그 박사가 전자에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바로 태어난 줄 알고 아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타의에서 들어와도 자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타의의 선배가 죽어서 영령으로서 나한테 침입을 했어도 선의적으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만들었죠. 그러나 진짜 공부는 악의적으로 했든 선의적으로 했든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걸 내 걸로 삼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인공이다' 라는 걸 아주 거기에다가 딱 놓고 '이게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지.' 한다면 그게 자의가 되거든요.

이것을 체험을 안 해 본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것이 수많은 악마라도 다 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다면 천지가 편안해. 천지가 다 편안하면 백성이 편안해. 모든 사생(四生)이 다 편안하고, 사람 될 율이 100% 더 많게 되고, 그 몹쓸 인연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불국토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이고, 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뭐 또 죽을까 봐 그렇게 살려 달라고 애를 씁니까?



불국토(佛國土)가 다른 게 불국토입니까? 여러분이 참, 꿰뚫어서 자기를 자기가 먼저 알고 또는 남을 알고 상대를 알고 함으로써 둘이 아니게 공존하는 줄 알고 화합이 돼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만 가지 향이 나고, 만 가지 꽃이 피게 되고, 만 가지 열매가 맺고, 만 가지 맛을 아니 이것이 불국토다 이거야.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시고 계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공은 광대무변한 뜻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수억겁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을 이끌어서 누진(漏盡)으로부터 오신통을 그대로 하는 것만이, 우리 지금도 오신통을 하고 가지만요, 그 오신통도 떠나서 모든 걸 자유스럽게 자유인이 되게끔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공밖엔 없으니까요.

나를 믿는다고요? 나는 길잡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를 믿는다면 나도 거기 첨보되어 있고, 저 부처님 형상도 여러분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또 거기에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부처가 스승이고, 부처는 중생들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평등 진리죠. 따지고 본다면 어떠한 회사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일 안 해 주면 사장이 어딨습니까? 사장이 없으면 직원들도 없고요. 이것은 모두가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서부터 열까지 귀중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 앞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은 발전할 겁니다. 지금 시쳇말로 이러는 거지, "깨달을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발전할 겁니다" 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내고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니 이게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다 여기 와서 나를 꼭 만나야만 하는 줄 아시지만 여기 스님네들한테 "이러이러해서 급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더 한마음 내 주십시오." 하고만 가도 됩니다. 또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하고 꼭 봐야 하고 여러분한테 꼭 목탁을 쳐서 해 줘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앉아 있지도 않아요. 나는 결심했거든요. 여러분한테 내가 얻어먹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피해나 끼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내려가지도 않고 혓바닥을 깨물고 죽겠다고. 그리고 죽어서 천당엘 가려고 내가 이런 다면 아예 살지를 않겠다고요. 그랬더니 살지를 않아도 고만, 살아도 고만입디다, 나중에 보니까. 하하하. 그래서 야,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얘기해 드리죠. 여러분이 죽으면 별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툰다 하는 것은 별의별 게 다 돼서 별의별 이름을 다 가지고 서로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공존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여기 스님네들한테 연락하시면 하시라도 빛보다 더 빠르게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천 리라도 좋고 만 리라도 좋고 강이 끼어도 좋고 산이 높아도 좋습니다. 산이 높아서 못 갈 일도 없고, 물이 깊어서 못 갈 일도 없고, 불구덩이라서 못 갈 일 없고, 죽은 세상이 돼서 못 갈 일 없고, 누가 못 가게 한다고 못 갈 일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자1(男)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득도한 사람이 죽어서 동물의 몸을 받고 태어날 때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득도했을 때의 높은 의식 수준으로 태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물의 의식 수준으로 태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득도한 사람이 왜 동물이 돼요, 또? 득도한 사람은 두 가지 여건이 있어요. 만약에 그 업식으로 잘못 저질러서 동물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득도를 했으면은 벌레까지 된단 말입니다.

질문자1(男) 벌레가 됐을 때의 의식 수준은 어떻습니까?

큰스님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 방에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와 같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한 세상이 오대양 육대주처럼 그렇게 장광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실오라기 머리카락 같은 그런 거,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다 집어내서 이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자꾸 지혜롭게 만들어 주거든요. 왜냐하면 같이해 주니까. 그래서 벌레도 건질 수 있는 거죠.

부처는 천백억화신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소를 건지려면 소가 되고,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되고, 벌레를 건지려면 벌레가 되고, 불쌍한 거지를 도우려면 거지가 되고 이렇게 장광하게 그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잘못해서 벌레가 되는 것과 자기 위해서 벌레가 되는 건 또 다르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깨달아 봐야 그 마음을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말로는 내가 할 수 없어. 왜냐. 내가 아무리 말을 해 줘도 여러분은 뜨거운지 찬지를 몰라요. 이 물컵을 내가 줘도 "찹니까, 뜨겁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말은 소용이 없어. 직접 자기가 먹어 봐야 이게 뜨거운지 찬지 그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질문자1(男)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까지의 그 의식 변천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요.

큰스님 이런 얘길 한번 하죠. 그것도 맛에 불과한 거지만 그 느낌을 제삼자가 얘길 해 주려면 말을 해야 되겠어요. 또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원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도 일찌감치 잃고 외딸을 혼자 키웠어요. 아주 애지중지 길러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시켰죠. 이건 현실에 있었던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사고가 나서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사십구재(四十九齊) 때도 그냥 몸부림을 치고 울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스님, 스님께서 우리 딸을 천도 좀 시켜 주세요. 죽었어도 어디로 갔는지, 저를 좀 알게…."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날을 두고 그냥 성가시게 구는데 못살겠어요, 정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딸이 아무개네 집에 태어날 테니까 이다음에 그 어린애를 낳걸랑은 수양 손주로 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있는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애지중지하신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죽는다고 하더니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죽질 않고, 이제 재산이 있건만도 뭐 팔러 다니는 척하고 그 집을 자꾸 드나들었던 모양이죠. 그 집을 다니다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딸 얼굴하고 똑같아, 똑같아, 아주. 점 하나 요기 (목 부근을 짚어 보이시고) 있는 거까지 똑같아. 그래 어머니가 너무 못 잊어 하니깐 그렇게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또 그렇게 인도를 했고요. 길잡이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지 뭐, 귀중한 사람 아니에요. 하하하. 밑도 씻겨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똥 친 막대기라는 소리도 들을 만하죠. 부처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능력으로서 참 그 딸이 그렇게 돼 가지고서는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수양 손주로 삼아 가지고 그 수양 손주한테 재산을 다 그냥 준 거예요. 만날 업고 다니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젠 돌아가시고 없겠죠.

질문자1(男) 그러니깐 자기가 체득을 하지 못하면 전혀 짐작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스님 그거는 열심히 공부해서요, 그걸 알려면요, 그거 한 가지만 알아서도 아니 되니까 여러 가지 다 알려면 벌써 나부터 알아야 돼요. 당신이 당신부터 알아야 앞으로의 전체를 알 수 있으니깐요.

질문자1(男) 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아는 과정을 좀 더 앞당기고 싶어가지고…. 하하하.

큰스님 앞당기려고 한다면 절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세상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는데 지금 내가 현실에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전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위 법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 - 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불자 세상보기 |

화합의 성탄절을 기원하며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선한 사마리아인' 의 비유는
종교가 해야 하는 모습 보여

세상의 고통에서 알아 나가며
약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

중동·유럽 등 종교갈등이 한창
화합·상생의 길 열릴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불교가 손 내밀자

"깊은 인연 감사드리고 예수님오신날 의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라는 아주 험한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몸도 죽을 지경에 이르러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거룩한 종교지도자, 학자, 사마리아인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종교지도자와 학자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의 고통을 싸매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만약 돈이 더 필요하면 돈도 주겠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 영생을 묻고자 왔던 사람이 당연히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도 같이 그와 같이 행하라.'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법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법회가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들이고' '사람들이고' '약자들이고' '고통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곳이 없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초월한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 초월을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세상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아픔, 이 여리고와 같은 수많은 약자들이 있는 이 세상, 수없이 죽고 죽이는 이 고통의 현실 앞에서 '누가 내 이웃인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머물러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신이 신으로만 존재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인간의 아픔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살필 수 있어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신이 인간이 되었다. 신으로 머물 수도 있지만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비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인이 종교인 역할을 잘하려고 하는 이상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성경에 쓰여 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상의 삶이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철저한 원수였으나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 앞에서는 원수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 자기의 절대적인 한계마저도 뛰어넘는 것이죠. 성탄적의 신비는 고통 받는 현장 속에서만 반복 재현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성탄의 축하는 일어나지만 성탄의 신비는 구체적으로 고통 받는 삶의 현장 속에서만 반복됩니다.

진짜 성탄절의 찬양이 울려야 할 곳은 교회나 성당이나 그런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저 고통 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성탄의 신비는 일어나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온 누리에 해당되듯 성탄절의 신비도 종교의 차이를 넘어 고통 받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2년째 열린선원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법회를 봉행하는데 올해 12월 10일 법회에서 이정배 목사가 한 설교 결론부를 옮겼다. 중동 지역과 유럽에서는 IS과 트럼프에 의해 촉발된 예루살렘 차지하기, 동남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 침탈의 피해를 종교간 갈등이라 오해하는 로힝야 사태 등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크리스마스도 돌아오고 몸과 마음이 삶과 날씨의 추위에 오그라드는 요즘 자비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를 신행하는 불자들이 더 넓은 가슴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社 說

사찰환경수호, 범불교적 접근 기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29개 종단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전국사찰수호연합회'를 산하단체로 가입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찰환경 침해 사례에 불교계가 한층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사찰수호연합회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불교문화재 피해와 수행환경 침해 대책을 강구하는 범종단적 기구다. 민간과 형평성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강제수용에 의한 운영손실 보상 등을 통해 삼보정재를 수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주 수도사를 중심으로 12개 사찰이 뜻을 모아 조직했다.

이후 삼척 안정사 인근 도로개발에 따른 보상 문제, 서울 심택사 수행환경 침해 등 각종 수행환경 문제에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건설자본과 각종 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종단협은 그간 사찰수호연합회가 불교계의 주요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높게 평가하고, 만장일치로 산하단체 가입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사찰환경 수호를 넘어 대사회적 인지도나 행정력이 부족한 군소종단을 품어 안는 결정이어서 박수 받을 만하다. 실제 종단협 소속 회장·부회장 종단을 제외하면 환경 침해를 겪는 사찰 대부분은 종단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종단협 산하단체로서 활동할 사찰수호연합회가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 관련법 개정 등 불교계 피해사례를 줄이는 데 방향타가 되길 바란다.

날마다 기부, 날마다 행복의 시작

추운 겨울 경제난으로 불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졌지만 마음만은 더욱 따뜻해 보인다. 연말을 맞아 불교계 공익법인을 비롯한 기부처에 불자들의 기부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기증과 생명나눔 운동을 벌이는 생명나눔실천본부에는 지난해에 비해 20% 가량 증가한 후원금이 답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기부 모연 캠페인과 불교계 대표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의 기부 캠페인에도 예년보다 많은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불자들의 뜨거운 자비실천의 원력을 이어 받아 12월과 1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각종 생필품 전달과 함께 따뜻한 부처님의 감로법을 전할 예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여덟 가지 복전 가운데 첫째는 불법승 삼보에 신심을 갖고 공경해야 함을 들며 그 다음은 간병복전이라고 해서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보살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육바라밀에서도 제일 먼저 보시가 등장하듯이 보시행은 불자의 근본 수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시바라밀이란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따뜻한 소식은 또 다른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인간이 고귀한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 지고 있다. 갑질 논란부터 흉악범죄까지 사회가 발달할수록 사람 냄새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평등함을 실천하는 일은 바로 보시, 기부를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영원한 오늘

송마나 작가

2017년이 저물어 간다. 아침에 일어나 한 시간을 헐어 사용하면 하루가 금방 사라지듯, 정월이 지나면 한 해도 빠르게 흘러간다. 알차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던 새해 아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끝자락이다. 그 많던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우리는 새해의 결심을 이루지 못하고 한 해를 흘려보낸 것을 아쉬워하며 지난날을 뒤돌아본다. 그러나 지난해를 후회하며 뒤돌아보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곤 한다.

왜 우리는 지난날들을 뒤돌아보는가? 오랜 세월 동안 과거를 뒤돌아보았지만 새롭게 변한 것이 없다면 그만 뒤돌아보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과거라는 어두운 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곳을 기웃거리는 것은 훈습에 젖은 나의 습성이 잡아끌기 때문이다.

성경 창세기에 여호와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의 가족들을 피난시키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 성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애착과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자 저승으로 내려가서 음악으로 저승의 신을 감동시켜 아내를 지상으로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지상의 빛을 보기까지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지키지 못해 아내를 데려오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지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오르페우스의 치명적인 실수는 욕망이었다. 그는 진리의 밝은 빛으로 에우리디케를 이끌어 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밤의 어두움 속에서 그녀를 갖고 싶은 욕망과 초조함 때문에 그만 뒤돌아봄으로써 그녀는 물론이고 자신마저도 죽음을 맞았다.

어쩌면 저승의 신 하데스는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지상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욕망이 잡아끄는 갈애로부터 벗어날 자는 없기 때문이다.

욕망이란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려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오온(五蘊)이 조건에 따라 연기(緣起)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변하는 나는 무아(無我)이다. 그런데도 거짓 나는 실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욕(五慾)에 집착하여 더 큰 욕망을 갈구한다.

인간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의 덫에 갇힌 수인과 같다. 세세토록 탐진치(貪瞋癡)의 동굴 속에 갇혀서 그만 바깥세상의 광명한 빛을 망각하고 삼독에 물든 마음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간다. 따라서 삼독의 훈습에 젖은 나는 그것에 이끌려서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뒤돌아보는 것을 그만 멈춰야 한다.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지난해가 있고 새해가 있을 까닭이 없다. 우리는 영원한 오늘을 살고 있을 뿐이다. <끝>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BTN 대표이사 서성우



통도사의 각종 행사를 돕는 통도사의 4개 봉사단인 사리탑봉사단 • 염불공덕회 • 바라밀다회 • 염화회 회원들이 오는 18일 열리는 화엄산림법회를 위해 모였다. 4개 봉사단은 사리탑, 보궁 등 도량 청소와 설거지, 지의 제작, 배식 등 서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봉사로 수행…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주인공들

道伴의 향기

통도사 봉사단(사리탑봉사단 · 염불공덕회 · 바라밀다회 · 염화회)

4개 봉사단 법회 도와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이끄는 숨은 봉사, 여법한 법회 진행
사리탑, 보궁 청소 및 설거지
염불공덕회, 지의 제작 3만개
바라밀다회, 탑다라니 봉사
염화회, 배식 및 과일공양

영축산 아래, 적멸보궁이 자리한 통도사 설법전은 음력 11월 1일이 되면 전국의 불자들이 찾아온다. 화엄산림대법회를 맞아 산문이 열리는 이 날을 1년 동안 기다려온 불자들이다. 그들은 마치 〈화엄경〉의 선재동자처럼 선지식의 가르침을 찾는 구법행을 시작한다.

매년 입재일이면 일만 명이 넘는 대중이 설법전을 가득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설법전 아래 템플스테이관에도 발 디딜 틈이 없다. 무려 47년 간 이어온 대법회에서 수많은 불자들은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만났고, 차가운 겨울도 이겨내는 정진의 열기로 성불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법열의 장엄이 펼쳐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을 맞아가며 설거지, 배식, 지의(紙衣) 접기, 과일 쌓기 등 여법한 법회를 위해 울력 봉사를 하는 이들이 있다. 통도사의 숨은 봉사단인 '사리탑봉사단', '염불공덕회', '바라밀다회' 그리고 '염화회'이다.

부산과 울산 등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날이 밝기도 전에 통도사에 도착하는 이들은 "봉사라고 생각하면 힘들어 못한다"고 했다. 그들은 "고된 일이 아닌 수행이자 기쁨이며 부처님께 보답하는 마음이다"고 했다.

12월 5일 통도사에서 만난 봉사단원들은 서로 바라보며 이번 화엄산림대법회를 맞아 "봉사는 이미 각오가 됐다"며 파이팅을 외쳤다.

함께해서 가능하고 행복한 일

이번 2017년 화엄산림대법회 입재일은 12월 18일이다. 통도사는 전국에서 찾아 올 불자들을 맞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했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씩 선 · 교 · 율에 능통한 전국의 대강백이 80권 〈화엄경〉을 각 품으로 나누어 설한다. 〈화엄경〉이 설해지는 그 순간 불자들은 통도사를 거처로 삼고 자고 먹고 씻는다. 하루 식사량도 가늠할 수가 없다. 공양을 먹기 위해 서서 기다리는 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일반 생활 뿐 아니라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은 염불과 천도의식으로 영가를 위한 시간도 보낸다. 매주 토요일, 불자들은 저녁 예불을 마치면 설법전에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염불하며 광목 끈을 잡고 법성게 모양을 따라 법당을 돈다. 영가도 〈화엄경〉을 듣고 극락왕생 하기를 바라는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시작한 일이다. 매주 일요일에는 천도재를 지내며 법회 회향일에는 위패와 다라니를 들고 금강계단을 한 바퀴 돈 후 소대 의식도 진행한다. 화엄산림법회 기간은 총 30일이다. 이 기간 동안 위패 접수는 계속 진행되며 하루에 한 번 〈화엄경〉 약찬게 기도도 진행된다. 법회가 쉼 없이 열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어떻게 이 일을 다 하느냐?"고 묻자 봉사단원들은 "우리가 맡은 일을 할뿐이에요. 각자 맡은 일을 해내면 잘 맞춰진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거죠"라고 답했다.

사리탑 봉사단에서 활동하는 고영미(52 · 울산) 씨는 사리탑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적멸보궁 사리탑을 청소한다.

"이런 말 안 믿겠지만 사리탑 청소할 때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새벽 6시에 출발해서 먼저 보궁에 들어가면 번뇌 망상도 잊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이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믿음의 가피라 생각되고 그렇게 보궁 가까이 있으니 그런 행복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제가 하는 일은 봉사가 아니라 특혜인 것이죠."

사리탑 청소 외 설거지도 담당한다고 했다.

"사리탑 회원이 30여명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조를 나눠 설거지하는 일에 동참하지만 화엄산림법회 때는 모두가 총동원되죠. 입재식 날에는 만 명이 넘게 찾아오니 설거지 정리는 끝이 없어요. 그 때는 온 산림으로 등록해 계속 통도사서 지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까지 3차례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김명희(59 · 부산 화명동) 불자는 "식당에서 돈 벌기 위해 하는 일이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시켜도 못할 거예요."라며 웃었다.

"비 오듯 땀이 나요. 힘들고 지친다기 보단 부처님 일이니 신이 나는 거죠. 그리고 고맙다며 독려하고 인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 많은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안하면 다른 회원들의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도반들을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모두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참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다 해…

염화회, 염불공덕회 그리고 바라밀다회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다. 봉사자 모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가 아닌 불사에 동참하고 있었고, 성불의 길을 가는 불제자로서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 할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거듭 강조하고 그로 인해 얻는 환희로 행복하다고 했다.

염불공덕회는 영가를 위한 일을 맡고 있다. 방지현(60 · 울산) 불자는 "평소는 시다림을 함께 갑니다. 어디든 요청이 있으면 극락왕생을 기원해 주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습니다. 화엄산림법회 때는 저희가 지의, 조상 종이옷을 접어요. 1년 동안 12만 장이 필요하거든요. 화엄산림법회 때는 많이 필요하죠. 법회 참석을 안 하는 분들도 그 때는 방문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틈틈이 접어 가져오고 판매까지 저희가 담당합니다. 화엄산림대법회는 대략 3만 벌이 필요한 거 같아요."

판매 수익금에 대해 묻자 학인 스님들의 교육비로 회향된다고 답했다.

"법회 회향 전 날 까지 위패를 받고 지의도 판매해요. 학인 스님들의 공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책 구입 혹은 학비로 사용이 되지요. 법회 기간 동안 토요일 저녁 7시 쯤 법성게 기도를 올려요. 회향할 때 소대의식을 하는데 불자들이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갑작스런 이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은 〈화엄경〉 법회를 일부러 찾아 영가 기도를 접수하고 법문을 듣고 위로를 얻지요."

B2면에 계속

INSIDE

B3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동현 송찬우 거사

B5
문화
사유 던지는 유쾌한 연극
'가벼운 스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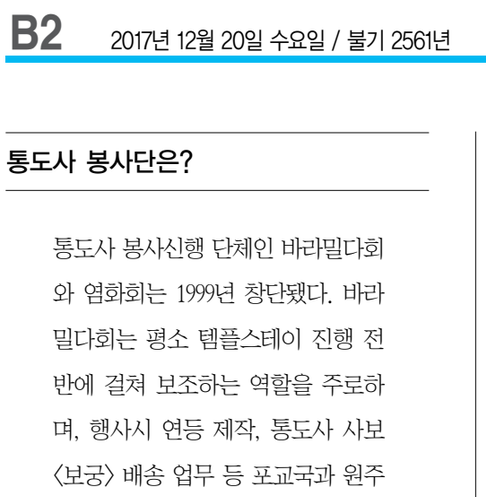
B6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봉정암 가는 길

통도사 봉사단은?

통도사 봉사신행 단체인 바라밀다회와 염화회는 1999년 창단됐다. 바라밀다회는 평소 템플스테이 진행 전반에 걸쳐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하며, 행사시 연등 제작, 통도사 사보 〈보궁〉 배송 업무 등 포교국과 원주실 일을 돕고 있다. 염화회는 재를 준비하거나 각종 재일의 고임새, 과일, 떡, 진수 등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신도배식과 식재료 다듬기, 김장, 된장 담그기, 등도 담당한다.

사리탑 봉사단은 2007년에 창단됐다. 적멸보궁 관리를 위해 청소와 참배 안내, 공양물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공양 후 설거지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염불공덕회는 2012년에 창립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인을 위해 염불 및 장례 봉사를 진행한다.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천수다라니가 적힌 지의를 제작 판매해 장학 사업도 진행한다.


봉사단 대표들. 좌부터 바라밀다, 사리탑, 염불공덕회, 염화회


바라밀다회 우편발송 봉사


사리탑 봉사단의 설거지 봉사


염불공덕회 지의접기 봉사


염화회 과일쌓기 봉사

“함께 봉사와 기도하는 우리는 평생 도반”

화엄의 세계 여는 봉사단

피라미드 공덕 다단계 도반
서로 수행 위한 노력, 성장
봉사에서 수행으로 발전
서로 위한 봉사가 곧 화엄
“깨달음 위한 길을 걷는 것,
너와 나 함께, 대승 보살의 원력”

‘통도사 봉사단’ B1면에서 계속

바라밀다회를 이끌고 있는 신순자(63 · 울산) 불자는 배식과 금강경 탑다라니 접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금강경〉 탑다라니는 중국의 7층 목탑을 형상화 해 찍어 놓은 것으로 〈금강경〉을 탑 전체에 새겨 넣어 둔 것이다. 법회 기간 동안 바라밀다회는 탑다라니를 2만장을 접어 대중에게 나눠준다.

“평소엔 다른 봉사 활동을 하지만 화엄산림대법회 때는 배식과 탑다라니를 접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바라밀다 회원들은 법회 기간이 되면 한 달 동안 매일 아침부터 나와 배식을 담당해요. 20여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이때는 모두가 동참하죠. 불자들은 수행 중에 밥 양을 많이 조절해요. 가감하는 발우 공양 문화 때문인지 밥 양에 대해선 예민하더군요. 저희는 그것을 돕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쉽지가 않아요. 위패 및 기도 접수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화회가 과일과 제사상을 담당한다.

서종애(62 · 부산 남산동) 불자는 “재를 준비하는 일은 저희가 어김없이 담당한다.”며 “과일쌓아 부처님 단에 올리고 그 앞에서 불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너무 뿌듯하다”고 했다.

“과일을 쌓고 나면 그 무게가 20kg 가까이 되더라구요. 많이 무겁지요. 재가 있기 전 날에는 법당에 앉아서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과일을 닦고 쌓고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를 합니다. 풍성한 과일을 부처님께 올리고 법당 문 앞에서 바라 볼 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서종애 불자는 “배식일도 함께 돕는데 그 일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며 “불자들 가운데 좋은 분도 계시지만 사실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름 아닌 수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덧붙였다.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울력 중인 봉사자에게 “어떤 인연으로 봉사단을 찾게 됐냐?”고 묻자 그는 “피라미드 다단계 도반 덕분이다”며 환하게 웃었다. 돈을 벌기 위해 만난 다단계가 아니라 봉사를 위해 만난 ‘공덕 나눔 다단계’라는 것이다.

서종애 불자는 “봉사 활동을 하기 전에는 사실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다”며 “지금도 친구들이 답답해서 어떻게 지내냐며 전화가 자주 와요. 근데 많이 놀아도 보고 좋은 곳에 가 봐도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라고 했다.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 첫차를 타고 오는데 누가 시켜서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좋으니 하는 거죠. 봉사해보니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안날 정도인데 권유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김명희 불자는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건 사실 도반의 권유였다.”며 “같이 하자며 손을 잡는데 일을 하고 나니 뭔가 뿌듯하면서 계속 나오게 됐어요. 진정한 공덕 피라미드 도반, 세상에 이렇게 좋은 다단계 있음 나와 보세요.”라고 했다.

봉사에 대해 설명하던 불자들은 수행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봉사를 하면서 수행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일상을 소개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만 했던 초심자들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경전을 읽는 법까지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것이다.

염불공덕회 소속 박명임(59 · 부산 반송) 불자는 “사실 영가 옷이 무엇인지 몰랐다. 근데 지금은 지의를 접는 봉사도 하고 장례식장을 방문해 시다림 염불도 함께 한다.”고 했다.

“10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년 전 꿈에 나타나셨어요. 생전에 평소 무채색 옷을 즐겨 입으셨는데 꿈에서 알록달록한 옷을 사달라고 하셨어요. 이상하기도 하고 많이 놀랐죠. 그 후 통도사에서 우연히 영가를 위한 지의를 봤어요. 빨간 글이 가득하고 꿈에서 봤던 그 옷이라 당장 사서 올려드렸어요. 마음의 짐을 벗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그 후부터 염불공덕회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장례식장을 찾아 시다림을 하는 장소를 방문해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엄산림대법회에 참석해 도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스스로 성장해가는 모습도 보게 돼서 보람을 느껴요.”

사리탑 회원들은 “봉사 시간 틈틈이 개인기도 시간을 꼭 넣는다.”고 했다. “혼자서는 아마 힘들 거예요. 평소에는 3명씩 조를 나눠 활동하는데 봉사 후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너무 든든하다”고 답했다.

잡화장엄, 저마다 보살꽃이 되어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는 1927년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 스님이 삼칠일간 법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경봉 스님은 화엄 산림법회 동참을 권유하며 1930년 9월 25일 직접 동참 서문을 작성해 법회 목적을 전했다.

경봉 스님은 “우리의 도(道)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견성하여 성불하는 것이며,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우쳐 이 둘이 이롭고 원만하게 되는 도(道)이다.”고 밝혔다. 자신과 함께 도반 그리고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이 깨달음 얻고 함께 원만한 길을 걷는 것, 바로 대승 보살의 원력이다.

〈화엄경〉은 ‘잡화엄식(雜華嚴飾)서 온 말이다. 온갖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이다. 〈화엄경〉을 ‘잡화장엄(雜華莊嚴)’을 줄인 〈잡화경〉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화엄경〉의 세상에서 부처님의 안목은 일체가 평등하고 높낮이가 없다. 사리탑봉사단, 염불공덕회, 바라밀다회 그리고 염화회 봉사단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묵묵히 담당하고 있다. 숨은 그 손길과 정성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빛내고 각자는 성불로 한 걸음 다가간다. 그들이 보살꽃이 되어 낮은 곳 높은 곳 구분 없이 통도사를 장엄하고 화엄의 세계를 열고 있다.

하성미 기자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D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리스 연꽃 대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꽃향
연꽃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연꽃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강화(사자발) 약쑥향
강화도에서 심고 가꾸어 엄선한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완벽한 조합이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당이 전하는 은은한 강화 사자발 약쑥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넘칠 것입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향나무향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㉕ 동현 송찬우 거사

‘선’ ‘유식’ 통달, 염불로 윤회 벗어나

> “금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홀어진 마음 없이 간절하게 한 구절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임종할 때 서방극락세계로 왕생하여 아미타부처님을 직접 뵙고 무생법인(無生法忍)을 깨닫게 된다.” –〈지관수행〉(송찬우 역해)

유식 바탕 독자적 경전 해석
선 · 교 함께 닦는 수행결과물
〈지관수행〉서 염불의 가치 밝혀



동현 송찬우 거사의 생전 모습. 승속을 초월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아미타불 접인 받으며 좌탈입적

“저 위하여 아미타불… 저 위하여 아미타불… (아미타부처님께서 오셨군요)”

2015년 1월 27일 새벽,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좌탈입적(坐脫入寂)한 동현(東玄) 송찬우(宋燦禹, 1951~2015) 거사의 최후법문이다. 동현 거사는 직장암 투병 중 기력이 소진한 상태에서도 지성으로 ‘아미타불’을 염하였다. 왕생하기 직전, 몸을 일으켜 달라고 손짓을 하여 앉혀드리자 천장 한곳을 응시하면서 “저 위하여 아미타불…”을 혼신의 힘을 다해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가며 반복했다. 호흡이 멈춘 이후 거사는 앉은 상태에서 순간 저절로 눈꺼풀이 사르르 감기며 편안한 모습으로 입적했다고 한다.

정토법문 강의 발원하고 왕생

이는 임종 직전에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정토(淨土)를 감득(感得)하고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 · 대세지보살 등 여러 성중(聖衆)의 인도를 눈앞에서 마주한 광경(阿彌陀佛 與諸聖衆現在其前)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동현 거사는 투병 중에도 세친(바수반두)보살의 〈왕생정토론〉을 마지막으로 강의했는데, 남은 생애는 정토법문을 강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한다. 세친보살이 염불삼매에 들었을 때 극락세계를 친견하고 저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왕생정토론〉은 극락정토에 화생(化生)하기 위한 염불수행법과 왕생의 공덕을 논리적으로 밝힌 정토문 최초의 논서이다.동현 거사가 이 논서를 강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은 투병 중임에도 얼마나 치열하게 염불에 매진하며 왕생극락을 발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언이기도 하다.

생사자재의 수행력 보인 재가 선지식

평생 선(禪)과 유식(唯識)을 비롯한 가장 난해한 경전과 어록들을 번역하고 강의하면서 청빈과 탈속의 무애자재한 삶을 살다가, 말년에 염불수행에 매진한 거사는 오탁악세에서 보기 드물게 아미타부처님의 접인(接引)을 받는 놀라운 회향을 보이니, 후학들에게 큰 감명과 함께 재발심의 기회를 선사했다. 수행풍토가 해이해진 오늘의 현실에서 그가 보여준 생사자재(生死自在)의 걸출한 수행력은 사부대중에게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주었다. 특히, 염불왕생의 성취는 많은 정토행자들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에 충분했다. 불교계에 모처럼 신심을 불러일으킨 서상(瑞祥)을 보여주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의 구도역정(求道歷程)이 어찌 우연히 이뤄진 것이겠는가. 치열했던 일생을 살펴보면 동시대를 산 한 거인의 족적(足跡)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성수 · 탄허 스님께 선(禪)과 교(敎) 배워

1951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동현 거사는 16세에 불문에 입문할 때 이미 4서와 〈시경〉을 보았을 정도로 한학 실력이 출중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연수원을 수료하고 고려대 한문학과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강의하며 원전 독해와 강의 실력을 철저히 연마했다. 동국역경원 역경위원과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면서 부터는 본격적인 역경 불사와 경전 강의의 외길을 걸었다.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낸 성수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20세에 당대 최고의 대강백이자 선사인 탄허 스님 문하로 들어가 〈서경〉〈주역〉〈좌전〉〈노자〉〈장자〉 등 최고의 동양고전을 섭렵한 것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였다. 13년 동안이나 유불선에 달통한 탄허 스님 곁에서 선(禪)과 교(敎)를 함께 닦았으니, 장년의 나이에 이미 법사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승조 · 감산대사 논서 읽고 심안 열려

1982년, 32세에 그는 16년간 머물렀던 절 생활을 청산하고 승복을 속복으로 갈아 입었다. 불교에 절망했다기 보다는 특정한 형식에 구애되는 것이 체질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옷만 바꿔 입은 스님”이라는 평을 들으며 장자(莊子)와 같은 자유인으로 살았던 그는 간경(看經)수행과정에서 세 차례, 문자반야를 통해 마음의 이치를 터득하는 계기를 얻는다. 30대 중반에는 승조(僧肇) 법사의 〈조론(肇論)〉과 감산( )大사의 여러 저서를 통해, 40대 초반에는 〈기신론〉과 〈유식론〉을 통해 공부의 큰 전기를 마련한다. 마치 감산 대사가 〈조론〉의 ‘물불천론(物不遷論)’과 〈금강경〉을 간행하여 강의하다가 심안이 열려 활연대오한 것처럼, 그 역시 경전을 보다가 공부의 깊이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그에게 있어 경전 번역의 의지를 심화시켜 준 인연은 승조 법사의 〈조론〉에 있었고, 거기에 주석을 단 감산 대사와의 만남은 단연코 그의 안목을 깊고 넓게 해준 큰 계기가 되었다.

‘선림고경총서’ 등 40여 경전 역경

탁월한 한문 실력에 불법에 대한 깊어진 안목을 바탕으로 그는 감산 대사가 해설한 〈조론〉을 비롯해 〈대승기신론〉〈금강경〉〈장자〉〈노자〉의 주해서와 지욱 대사의 〈금강경 파공론〉〈종경록 촬요〉 등을 잇달아 번역해 불교 내외의 지식인층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감산 대사의 주해서들은 그간의 여러 주석서의 잘못을 시정하고 정법을 되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뜻으로 읽는 금강경〉〈법상유식학으로 풀이한 반야심경〉 등의 저서를 통해서는 유식(唯識)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안목으로 경전 해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가 문사철(文史哲)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선지(禪旨)를 갖춰야만 강의할 수 있는 〈벽암록〉을 비롯해 〈종경록〉〈능가경〉〈육조단경〉〈달마대사혈맥론〉〈이입사행론〉〈전심법요〉 등을 원문으로 강의한 것은 결코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 아울러 〈전심법요〉〈백장록〉〈동산양개화상 어록〉 등 23권의 선어록을 완역, 성철 스님의 ‘선림고경총서’ 가운데 3분의 2 정도를 번역한 것은 선리(禪理)에 달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야말로 선교(禪敎)를 함께 닦은 수행의 결과물인 것이다.

역경사 양성 꿈 못 이뤄

그는 경전 강의를 할 때는 한자 원문과 토를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숨겨진 심오한 뜻을 드러내어 매순간 공부인들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경안(經眼)을 갖춘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고 싶었던 그는 입적하기 전까지 동현학림에서 후학을 지도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강사급 정도의 역경사(譯經師)들을 양성하고 싶었던 그의 바램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간경수행을 겸한 후학 양성에 전력을 다하던 동현 거사가 생의 마지막에 염불수행에 전력을 기울인 까닭은 무엇일까? 천태 대사와 의상 대사가 〈법화경〉과 〈화엄경〉을 각각 공부하면서도 수행법은 아미타 염불을 택하고, 영명연수 · 철오선사 등은 선사이면서도 염불로 왕생했듯이 그 역시 암 선고를 받고 마지막 수행법으로 염불을 택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실제로, 그의 유작인 〈지관수행〉에는 대승의 사마타(止) · 위빠사나(觀) 수행법을 ‘아미타불’ 염불을 예로 들며 설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염불수행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다음 글에 그의 수행법이 엿보인다.

지관(止觀)으로 염불수행을 하다

“지금 말법시대에 법을 펴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면 늙을 때까지 염불을 진실하게 하여 한 구절 아미타 명호를 부를 경우, 그 자리에서 아상, 인생, 중생상, 수자상 등 사상(四相)이 없어져 안으로는 신심을, 밖으로는 세계에 대한 집착을 잊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止)’ 공부이다. 또 소리소리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마다 부처님 상호가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것은 ‘관(觀)’ 수행이다. 염불을 부르는 자와 부르는 대상인 부처님, 이 둘을 쌍으로 잃는 경지에 이르러 자타가 둘이 아닐 땐 이 경지에서 마음을 되돌려 허깨비와 같은 염불공부로 허깨비와 같은 중생을 교화하게 된다. 집착이든 병이든 논할 것 없이 단지 ‘아미타’라는 약으로서 중생을 다스려 중생들이 각자 허깨비와 같은 그림자 모습을 소멸하고 임종 시에 허깨비와 같은 극락에 왕생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다면 이익이 절묘한데, 그 경지를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경학과 심법 통달하고 염불법 선택

〈지관수행〉에서 동현 거사는 “지관으로 염불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여래행을 행하는 것이고 여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아미타불 한 구절의 명호를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극히 염불한다면 삼계 내 범부의 견혹(見惑: 사상적 미혹)과 사혹(思惑: 감정적 번뇌)에 요동하지 않고, 출세간 소승의 진사무명(塵沙無明)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면서 “위없는 반열반(般涅槃: 완전한 깨달음)은 최후까지 항상 고요한 삼매이며, 이것이 바로 한 구절 아미타불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염불수행은 경학과 심법을 완전히 통달한 데서 나온 순선(純善)의 결정체임을 알 수 있다.

종교의 위기, 불교의 위기가 회자되는 이 시대에 그는 오로지 불조의 혜명(慧命)을 잇는 경전 번역과 강의로 일생을 헌신하고 거룩한 회향까지 나타냈으니, 절망적인 한국불교에 한 줄기 빛을 선사한 선지식임에 분명하다. 우리 후학들은 그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본받아 어떻게 자기 혁신과 불교 중흥을 이룰 것인지, 진심 어린 반성과 각오를 다져야 하지 않을까.

염불은 가장 쉽고 확실한 생사해탈의 길

그동안 ‘염불각자열전’이란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하근기들이나 하는 열등한 수행법으로 치부되던 ‘아미타불’ 염불이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들이 심오한 법문으로 찬탄한 최상승 수행법임을 강조하여 공감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안도하며, 보다 많은 불자들이 가장 쉽고 확실하게 윤회를 벗어나는 수행법인 염불에 착수하시기를 발원하며 연재를 마친다. 나무아미타불! 〈끝〉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2.13~2017.12.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손쉬운 논문쓰기 노하우는?



쫄지마, 얼지마, 숨지마, 스님의 논문법

자현 지음
불광 펴냄
1만 5천원

초등학교 성적표에 '가'도 있고, 학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나쁜 기억력에 독수리타법으로 속도마저 밀리는 자현 스님. 그는 어떻게 국내 최다인 4개의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을까? 또한 어떻게 매년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 가장 많은 논문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수록하며 '논문의 신'으로 통하게 되었을까?

자현 스님은 2년 전 "머리 나쁜 나도 하는데, 당신들은 더 잘할 수 있다"며, 열등감을 실력으로 바꾸는 역전의 공부법인 〈스님의 공부법〉을 내놓았다. 이후 가는 곳마다 대학원생들과 학자들로부터 논문 쓰기 비법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이에 단편적으로 조언을 해주던 것에 한계를 느끼고, 〈쫄지마 얼지마 숨지마, 스님의 논문법〉을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했다.

저자, 석사 2개와 박사 4개 취득
매년 15편 안팎 논문 학진 등재
성공적 대학원 생활 위한 가이드

스님의 논문법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만큼 획기적이며 파격적이다. 성격적으로나 승려라는 특수신분상 지도교수와 그리 친밀하지 못했기에, 자신만의 논문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선행 연구와 논문을 취합하고 분석하며 무던히도 애썼다. 그리고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마침내 누구나 손쉽게 논문을 구상하고 작성하는 법을 터득했다.

스님은 책 속에서 "나는 성격적으로나 승려라는 특수신분상 지도교수와 그리 친밀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 4개를 취득했다. 필연적으로 남과는 다른 노력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나만의 노하우, 즉 족보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현 스님은 이를 토대로 매년 15편 안팎의 논문을 학진 등재지에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는 독보적인 1위다. 이제 누구나 논문을 손쉽게 쓰고 시간도 비약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빠짐없이 공유하고자 한다.

이 책은 논문을 '잘' 쓰는 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대학원의 구조와 논문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내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논문 구상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준다. 이 방법만 숙지하면 논문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순식간에 지울 수 있다. 그리고 핵심은 손쉬운 논문 쓰기의 기술이다. 이는 논문만 떠올리면 머리가 캄캄해지는 사람들에게, 논문 통과의 특급 비법을 통해 빠른 졸업을 약속해준다.

또한 이 책은 기존의 '논문작성법' 책과 달리, 저자의 대학원 생활을 비롯해 논문에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어 대학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앞둔 사람에게는 즐겁고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위한 친절한 가이드 역할도 해준다.

"그만 논문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살라!" 주위를 둘러보면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논문을 통과하지 못해 졸업을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 그들에게 논문은 일생일대의 고민이자 걱정거리다. 논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고 있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극심한 논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대학원을 떠도는 '공부 낭인'들에게, 스님의 논문법은 논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해준다. 비록 중생구제는 뒤로 미룰지언정 논문 통과와 졸업이라는 해탈은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책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스님에 말에 의하면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

△논문을 한 편도 써보지 못한 사람 △석사논문을 명작처럼 완벽하게 만들려는 사람 △지도교수와 친밀하지 못한 사람 △자력으로는 논문 쓸 엄두를 못 내는 사람 △논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졸업을 못해 대학원을 오래 다니는 사람 △대학원과 직장을 병행하며 논문 쓸 시간이 없는 사람 등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효 탐구 50년의 결과물

원효의 열반경종요

은정희 · 김용환 · 김원명 역주 | 민족사 펴냄 | 2만8천원



민족사 학술총서 제72번째 책으로 〈원효의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원효 연구의 대가인 은정희 선생이, 젊은 학자인 김용환, 김원명 선생과 함께 10여 년 간 묵묵히 매진한 번역의 결과물이다. 은정희 선생은 1991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 별기(別記)〉를 완역했다. 이후 원효의〈금강삼매경론〉과 〈이장의(二障義)〉를 역주(譯註)했고, 이번에 나온 책은 원효 저술에 대한 네 번째 역주서이다. 이것은 '원효 탐구 50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열반경〉은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후대에 성립한 경전으로, 최초로 "일체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고 하는 내용이 설해져 있다. 또한 부처님은 80세로 열반(입멸)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세상(법계)에 계신다는 '불신상주(佛身常住)'가 설해졌으며, 또한 열반은 무상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며, 진정은 즐겁고, 진정한 나이고, 진정으로 깨끗하다는 '열반상락아정(涅槃常樂我淨)'에 대해 설한 경전이다. 즉 열반경은 열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서술했다고 할 수 있다.

'열반(涅槃)'이란 산스끄리트어인 '니르바나'의 한자 표기(소리 표기)이다. '니르바나'는 '번뇌를 소멸하다'는 뜻이며, 곧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無智)이라고 하는 삼독(三毒) 번뇌의 불을 꺼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열반은 깨달음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죽음'을 뜻하는 의미로도 널리 사용된다. 마음의 괴로움과 함께 육체적인 괴로움까지 소멸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열반이란 것이다. 그런 관점서 부처님을 비롯한 고승들의 죽음을 '열반' '입적(入寂=번뇌가 소멸되어 고요해짐)' '입멸(入滅=번뇌가 소멸 세계에 들어감)' 등이라고 하게 된 것인데, 그 의미는 모두 깨달음과 동의어이다. 또한 '깨달음'의 뜻으로 '멸도(滅度)'라고 한역(漢譯)한다.

〈열반경종요〉, 열반경 핵심 요약
단순 번역 넘어선 비교 역주서

그리고 육체마저 소멸된 상태를 '반열반(般涅槃)'이라고 하는데, 반열반은 '완전한 깨달음'이다. 따라서 '열반' 혹은 '반열반'은 불교 최후의 실천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은정희 선생 등 3인이 역주한 이 책은 신라의 대표적 고승인 원효 스님이 36권에 달하는 방대한 '열반경'의 핵심을 요약한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를 번역하고 이어 상세히 주석을 붙인 책이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고 몇 가지 번역서에 대해 자세하게 비교 대조한 역주서이다. 따라서 원효의 열반경종요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참고서가 될 것이다.

역주자 은정희 교수는 "역주자인 세 사람은 6년 동안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모여 역주 작업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차례 이상을 반복했다. 인용문마다 출처를 찾아 대조하고, 도표와 전체 구조표를 만들어 가며 읽고 또 읽었다. 특히 김용환 선생의 치밀한 사고와 철두철미한 탐구정신은 번역의 충실성을 더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회고했다.

김주일 기자

사찰도 아는만큼 보인다

재미있는 사찰이야기

한정갑 지음 | 산지니 펴냄 | 1만 8천원



사찰에 들어서면 꼭 만나게 되는 4대 천왕. 왜 그들은 무기를 들고 사찰을 지키고 있는 걸까, 대웅전의 부처님상의 손 모양은 무엇을 뜻할까, 절은 항상 산에 있어야 하는 걸까. 사찰에 가게 되면 이런저런 의문이 들지만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는 안내가 없다. 사찰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불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조성되었고, 그것을 조성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본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없다. 〈재미있는 사찰 이야기〉는 전통 사찰과 사찰의 각종 조형물에 대한 안내서로서,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 사찰과 조형물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저자는 전국의 전통 사찰을 답사하면서 사찰에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 조형물에 깃든 불교의 교리를 심도 깊게 풀어간다.

1부에서는 사찰의 배치도와 함께 진입해 가는 순서대로 불교 교리를 설명한다. 불교에서 수미산 정상은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곳이다. 수행자는 이곳을 통과해야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사찰은 그 수미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수미산에 가기 위한 여러 관문이 사찰의 구조와 배치에 담겨 있다.

저자는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사찰의 배치도와 구조에 깃든 불교적, 문화적 상징에 대해 심도 깊게 설명한다. 2부에서는 지옥세계에서 완성의 세계로 이어지는 중생의 윤회세계와 우리나라에서 신봉되는 불상을 설명하였다. 사찰의 각 구조물에 보이는 중생들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10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10세계에 대한 저자의 상세한 설명은 석가모니불, 미륵불, 불교 탱화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부에서는 탑과 석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대에 따라 변천한 탑의 양식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다. 우리나라 탑의 재료는 주로 나무와 돌로, 특히 화강암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탑과 석등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천했다. 저자는 삼국시대에 각기 달랐던 탑의 특징, 이후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탑의 모양이 시대 배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존하는 탑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4부는 목조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사찰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조 건축물에 대한 용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돌과 흙을 쌓는 방법인 기단, 기둥 수와 모양에 따른 양식, 안과 밖을 구분하는 벽면과 창호 등 사찰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적인 양식에 대해 알려준다.

김주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연극 '가벼운 스님들' 은 네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다. 삶에 대해 생각게 하는 법문 같은 대사들이 연극 속에 가득하다.

사유 던지는 유쾌한 연극 '가벼운 스님들'



연극 '가벼운 스님들' 포스터.

"그럼 워치켜. 종팔이는 니 두 눈 ˇ 인 뭇살겄다고 하고, 넌 죽어도 종팔이하구는 뭇살겄다고 허니, 그냥 니 두 눈을 뽑아서 줘버리면 다 되는 거 아녀. 두 눈 ˇ 다고 중노릇 뭇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는 게 보는 게 아니고, 또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도 아닌디, 그냥 쓸데없는 거 달고 다닐 필요 ˇ 이 줘버리자니께."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의 이만희 극본

2018. 1. 11 ~ 2. 4 서울 대학로 알과핵

2018년 1월 11일부터 2월 4일까지 서울 대학로 알과핵소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연극 '가벼운 스님들(연출-최용훈)' 의 한 장면이다. 한 남자가 비구니가 된 속연의 아내를 찾아와 함께 사바로 돌아가자고 떼를 쓰고, 비구니가 된 여자는 뒤늦은 남자의 용서를 결코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결론이 나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도반 스님이 그 쉽지 않은 삶을 향해 한 마디 던진다. 눈을 뽑아주라고. 삶은 그렇게 다난한 것인가. 삶의 거처를 옮겨보지만 여전히 삶은 쉽지가 않다.

연극 '가벼운 스님들' 은 네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다. 바람 난 남편 때문에 출가했지만 깨달음은 멀고 매표소 소임만 몇 년 째, 하지만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우남 스님. 계율에 충실하며 출가자의 본분을 다하지만 대중과는 그다지 여법하지 못한 권력자 총무 스님. 눈치가 백단이며 우유부단한 면이 있지만 대중과 원만하고 원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원주 스님. 계율을 그다지 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괴각도 소임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인간미를 품고 있는 지월 스님. 이들 네 명 주인공들은 각자의 삶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 이야기들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삶' 이 되고, 그 삶에서 비롯된 한 줄 한 줄의 대사들은 고개를 뉘이고 눈을 감게 한다. 마침표에서 다시 문장의 맨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그 물음표이면서 느낌표인 한 줄 한 줄이 한 편의 연극이 된다.

연운경 등 배우들 삭발 감행

법문 같은 대사로 '삶' 바라보게 해

연극은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를 썼던 이만희 작가의 신작이다. 불교가 배경과 설정을 이루기 때문에 자칫 낯설고 딱딱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작가는 충청도 사투리와 정감 있는 캐릭터로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연출은 2016년 '올해의 연출가상' 을 수상한 최용훈 연출이 맡았다. 연운경, 강애심, 박현숙과 이선주 등 TV드라마, 연극, 영화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배우들의 연기도 기대된다. 여배우들이 중심이 되는 작품을 만나보기 힘든 최근 연극계여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연극과 영화를 오가며 활약 중인 최광일이 함께 하며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인공 네 명 중 두 명은 아직 연습 중임에도 삭발을 감행했다. 가벼워 보이기도 하지만 진지하고 유쾌한 연극, '가벼운 스님들' 이다.

"요즘 들어 코미디가 부쩍 더 좋다. 안 그래도 고달프고 복잡한 세상인데 뭐 하러 비극을 써서 등짐을 더 얹겠는가. 허나 '가벼운 스님들' 을 쓰려고 하니 '스님들' 과 '가볍다' 는 이미지가 잘 안 맞았다. 스님들을 너무 엄숙하고 중후하게 보았는지 쓰다보면 무겁고 쓰다보면 진지해졌다. 가볍게 쓰는 것도 무겁게 쓰는 것 못 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작가의 변이다. 그래서 연극 '가벼운 스님들' 에서 '가벼운' 이 담고 있는 의미는 쉽지 않다. 객석에 앉을 관객들이 챙겨야 할 몫이다.

봉국사라는 절 마당에서 오래 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연극은 시작된다. 절은 발칵 뒤집히고 네 명의 비구니 스님들은 우왕좌왕한다. 도대체 절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공연문의 1599-4780.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단청에 스민 크리스마스

박일선 '단청 크리스마스~' 전 까루나, 12월15일~1월14일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단청작품 전시가 열린다.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 비로자나국제선원 갤러리 깔루나에서 열리는 박일선 초대전 '단청 크리스마스-천상으로의 여행' 이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색깔은 초록색과 빨간색이다. 이 두 가지 색깔은 단청의 다섯 가지 색깔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이러한 색채의 공통점을 살려 '단청산수' 라는 장르를 현대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박일선 작가의 단청작품들로서, 불교와 크리스마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시도했다.



천상으로의 여행 20×20㎝/나무, 단청안료, 먹, 호분

모두가 즐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최근 불교계는 다양한 행사와 메시지를 통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다. '단청 크리스마스-천상으로의 여행' 전은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상징되는 크리스마스의 색채와 우리 전통의 색채인 단청(丹靑)의 색채를 한 그릇에 담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작품은 작가가 어머니의 투병생활을 지켜보며 편안한 '천상으로의 여행' 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한 것들이다.

비로자나국제선원 까루나 갤러리는 사무량심을 주제로 한 전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박일선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 도안과를 졸업했고, 양선희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에게 사사했다. 2014년 제12회 겸재진경미술대전 대상, 제2회 KOTRA 한류미술공모전 동상 등을 수상했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공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학 및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등록대학
한국불교교육대학 대학원 천불사
COLLEGE AND GRADUATE SCHOOL OF KOREAN BUDDHIST EDUCATION CHEON BOOL SA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8-16 흑성산
TEL : (041) 557-3223 FAX: (041)556-1388
조실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문학박사 인환 대종사 주지겸학장 : 철학박사 석 인 경 (太山-印鏡)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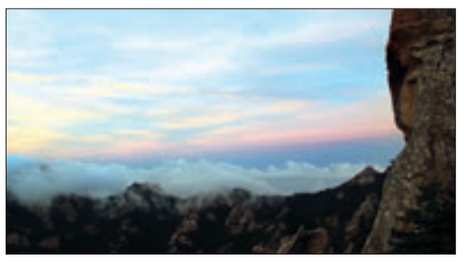
혼자 오르되, 남을 위해 오르는 길

저 절로 가는 길

㉕ 봉정암 가는 길



봉정암 석탑을 뒤로 해가 저물고 있다. 자연은 평등하다. 시간도 평등하다.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석탑은 우리에게 그 진실을 전해준다.



사리탑서 바라본 용아장성



오세암 공양간 앞 푯말



오세암 관음전의 관음보살상

자장은 왜, 저 높은 곳에 탑을 세웠을까? 백담사에서 영시암에 이르는 어두운 숲에 가끔 눅눅한 바람이 지나갔다. 도반들이 짊어진 배낭이 그때처럼 축 늘어진 커튼처럼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였지만 비 그친 숲에 드문드문 돋아나는 검버섯 같았다.

영시암에서 국수 삶는 냄새가 났다. 작년에 내가 봉정암에 오를 때도 영시암에서는 국수를 삶았다. 어렸을 때 국수 뽑는 집을 지나다 본, 빨랫줄에 널어놓은 가느다란 국수였다. 하늘이 멍자국처럼 푸르뎅뎅하더니 금세 날이 저물었다. 아으, 칼국수처럼 풀어지는 어둠! 기형도 시인의 폭풍의 언덕에서처럼 오세암으로 가는 숲길에 비를 품은 바람이 지나다녔다. 그 바람이 잠자리를 훼방하는 듯 오세암 방사마다 전등불이 켜져 불야성이었다.

정채봉이 쓴 오세암은, 동화로 아름답게 꾸며내긴 했어도 설악산 깊은 암자에 버려진 고아가 어느 겨울, 스님도 없는 빈 절에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아이는 꿈속에서, 아니 이생의 끝자락에서 관세음보살로 현현한 엄마 품에 안기고, 오세암은 눈 내리는 설악산 품에 안긴다. 어린아이를 저 세상으로 보낸 오세암은 겨우내 푹푹 내리 쌓인 눈에 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오세암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고 배낭을 내리자 마침내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다. 방사에서 곰팡내가 심하게 풍겨왔다. 방바닥은 습기를 머금었고 이불은 눅눅했다. 순례자들이 서로의 신변을 묻거나 법담을 나누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였다. 방사 봉창으로 사선을 그리며 내리는 빗줄기가 보였다. 피로한데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눈을 감았으나 비가 지붕을 치고 벽을 때리는 소리에 깊은 잠이 들 수 없었다. 이따금 가벼운 천둥이 치고 번개가 봉창을 긁고 지나갔다.

선잠에서 깨어나 봉창을 보니 빗줄기가 수직을 긋고 있었다. 날이 밝기 이른 시간이었지만 방사 밖으로 나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염불소리를 들었다.

백의관세음보살 앞에서 삼십 대로 보이는 젊은 처자가 천수경을 독경하고 있었다. 방사 바깥에서 들은 목소리가 보았다. 몇 사람이 더 관음전 안에 있었으나 오직 그녀에게만 눈길이 갔다. 무슨 사연이기에……?

숨은 사연을 처연하게 독백하는 것처럼 들리는 천수경 소리와 더불어 날이 밝았다. 바깥으로 나오자 가늘고 질긴 빗줄기가 밤새 비에 젖은 흙과 바위와 수풀을 또 적시고 있었다. 밤새 비에 젖어 있던 내 귀와 내 눈도 다시 비를 맞았다. 빗소리 외에는 사방이 고요했다.

자연은 빗줄기에 말없이 잦아들었지만, 사람은 달랐다. 사람만이 빗줄기 앞에서 우왕좌왕했다. 새벽녘 봉정암으로 떠날 채비였던 순례자들은 빗줄기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였다.

"오세암까지 왔으니 내는 직여도 봉정암에 갈랍니다. 봉정암 갈라꼬 일년을 기다렸어예."

경상도 노보살을 필두로 비를 뚫고라서도 봉정암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빗줄기를 바라보기만 할 뿐 막상 걸음을 떼놓지는 못했다. 각자 무얼 생각했을까. 나는 숲에서 수행하는 고대 인도의 수행자들이 우기 때면 나뭇가지나 풀을 엮어 만든 움집에 들어선다는 안거(安居)를 떠올려보았다. 그들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속에 들어 앉아 선정에 들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생각에 잠긴 눈꺼풀 밖에서 내렸던 1,500년 전의 비를 상상하며 나는 천천히 우비를 입었다. 당신은 한순간이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나선 적이 있는가. 나는 오세암에 내리는 빗줄기와 더불어 그 길을 가고 싶었다.

나는 오세암 공양간 옆에 표시된 이정표를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준비라도 한 듯 나머지 사람들도 내 뒤를 따랐다. 그중에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를 봉정암 사리탑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뒤따르는 학부모도 있었다.

부처의 사리 담은 석탑
삶·죽음의 평등함 전해
시공간 넘은 진리에 감탄

- 걷는길 : 백담사 – 영시암 – 오세암 – 봉정암 – 구곡폭포 – 영시암 – 백담사
- 걷는시간 : 7시간

다행히도 폭우가 앞길을 막지는 않았다. 폭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아니어서 더더욱 다행이었다. 자, 우리는 가야 한다. 부처가 있는 봉정암으로 가야 한다. 부처는 늘 거기 있으리라고 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비록 부처가 늘 거기 있으리라고 말한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의 사대성지는 아닐지라도 거기서 캐온 부처의 씨앗이 동방의 연꽃으로 만개한 봉정암 아닌가.

앞서 가던 경상도 노보살이 하염없이 뒤처지고 있었다. 나는 선두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노보살을 부축했다. 노보살이 고맙다면서도 당신의 늙은 몸을 한탄한다.

노보살의 몸도 비에 젖어 있었다. 더 이상 관리되지 않는 살과 뼈가 젖은 옷에 드러나서 제멋대로 덜렁거린다. 살과 뼈가 다른 살림을 차린 모양새이고,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에 내가 살고 있다고 늙은 몸은 말하고 있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나 노보살처럼 생로병사에 익숙해질 터인데도 옷과 집의 보호를 무한정 받는 양 몸을 아낀다. 너무나도 성스러운 내 몸을 위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든 치장하고 싶다. 비와 바람과 안개를 차단하려고 견고하게 담을 쌓거나 두터운 강화유리벽을 두른다. 그렇게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치매에 걸릴 때까지 사는 삶도 불행하지만, 죽음이 임박해서야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깨닫는 삶도 그에 못지않다.

오세암을 통해 봉정암으로 오르는 길은 유난히 구불구불했다. 뒤에서 보니 길이 비구름과 안개를 번갈아 드나드는 것 같았고, 순례자들이 배낭 대신 비구름의 집을 등에 짊어지고 힘겹게 걷는 것 같았다.

느낌과 의식과 언어에 끄달려 항상 노예처럼 절절매고 살아왔던 몸, 깨달음이 없이 지탱해온 이 몸이야말로 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집이 아니고 무엇이랴. 나를 감싼 욕망의 껍데기를 부수는 일이라면 빗줄기뿐 아니라 천둥과 번개라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오를수록 경사가 점점 더 심해졌지만 빗줄기는 늘지도 줄지도, 굵어지지도 얇아지지도 않았다. 얇은 우비 한 장에 가린 내 몸속으로 비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폐장과 심장 사이에서도 빗소리가 났다. 비에 젖은 숲도 스며든다. 나뭇잎과 돌들이 내 몸에 들락거리는 소리도 났다. 나는 온전히 빗소리와 독대하고 있었다. 느낌과 의식과 언어에 끄달려 항상 노예처럼 절절매고 살아온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다.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선두가 봉정암으로 넘어가는 '깔딱고개' 앞에 멈추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쉬었다가 봉정암으로 갈 요량인가 보았다. 경상도 노보살은 더 참지 못하고 바위에 박은 쇠파이프 손잡이를 두 손에 거머쥔 채 털썩 주저앉았다. 하얗게 세다 못해 듬성듬성 머리카락이 빠져나간 정수리를 보이면서 노보살은 겨우 말했다.

"하이고, 내는 이자 봉정암 올라가삘면 더는 몬 올라가예."

"그래도 내려가면 생각이 달라지실 걸요."

내가 웃었지만 노보살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영감이 아파서 올라왔어예. 영감 저승 가뿔기 전에 부처님께 인사 대신 드릴라꼬예. 전엔 봉정암에 노상 같이 왔지예."

남편을 위한 봉정암행이란 말에 짠한 감동이 가슴을 찔러왔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깔딱고개를 넘어야 한다. 사는 일은 얼마나 힘든 고갯길이었나. 그러나 굳이 깔딱고개를 넘어 사리탑에 이르지 않아도 빗줄기를 뚫고 봉정암에 오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훤히 열렸다. 나는 비에 젖은 파이프를 움켜준 경상도 노보살의 쪼글쪼글한 손에서 부처를 보았다. 그 순간, 비가 개었다.

부처의 사리는 골고루 나누어졌다. 신라의 자장이 봉정암 사리탑에 넣은 사리는 그때 그것이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리가 아니라 부처의 평등정신이다.

"아난다여, 내가 깨닫기 전에 받은 수자타의 공양과 지금처럼 열반을 앞두고 받은 춘다의 공양은 그 공덕이 같구나. 이 말을 춘다에게 전해다오."

봉정암 사리탑에 올라 108배를 드리는 동안 부처가 아난다에 전한 이야기를 나도 들었다.

삶과 죽음은 평등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남의 죽음을 대신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곁에 아직도 경상도 노보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그녀의 쪼글쪼글한 손이 남편뿐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생명을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나는 소망한다. 〈끝〉

＊연재를 마치면서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불교순례길이라 여겨 8년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현대불교신문을 만나 1년을 함께했지요. 이제 봉정암 가는 길을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마지막 글에서 암시했듯이 제 진정한 도반은 저와 함께 순례길을 걸은, 중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불교순례길을 걸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절로 가는 길이 저절로 가는 길'이길 저는 소망합니다. 혹, 저와 함께하고자 하는 미래의 도반은 연락 주세요.
조계종산악회 (02)720-7455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발냄새' 대박!
1시간안에 100%효과! 대박!
☑발의 악취! ☑발의 땀! ☑발의 건강!
발의 악취 및 땀을 제거해 발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신기깔창!
이런분들께 추천해요!
군화를 하루 종일 신고 근무하는 박이병
발에 땀냄새가 많이 나는 김대리
여친과 데이트를 준비하는 임과장
가정 방문 A/S 하는 정주임
CEO 거래처 회식에 발냄새가 걱정인 최대표
패션을 포기할 수 없는 이팀장
＊깔창 주문사이즈 / 신발 사이즈
小(소형) 225mm~245mm
中(중형) 250mm~265mm
大(대형) 270mm~285mm
'구두+스타킹' =발냄새대박!
'운동화+양말' =발냄새대박!
1시간안에 100% 효과! 너무 신기해서 신기깔창!
MEDIME
'20년간 약국에서 판매된' 신기깔창
발 건강을 위한 보조제로 병용하시면 좋습니다
교체주기 : 3~6개월 (사용 빈도에 따름)
18,000원 15,000원
구입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자책하지 말자

실수를 하면 심하게 자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의 좋은 면도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책 대신 실수에서 배우겠다고 결심합니다.

숨어있는 습관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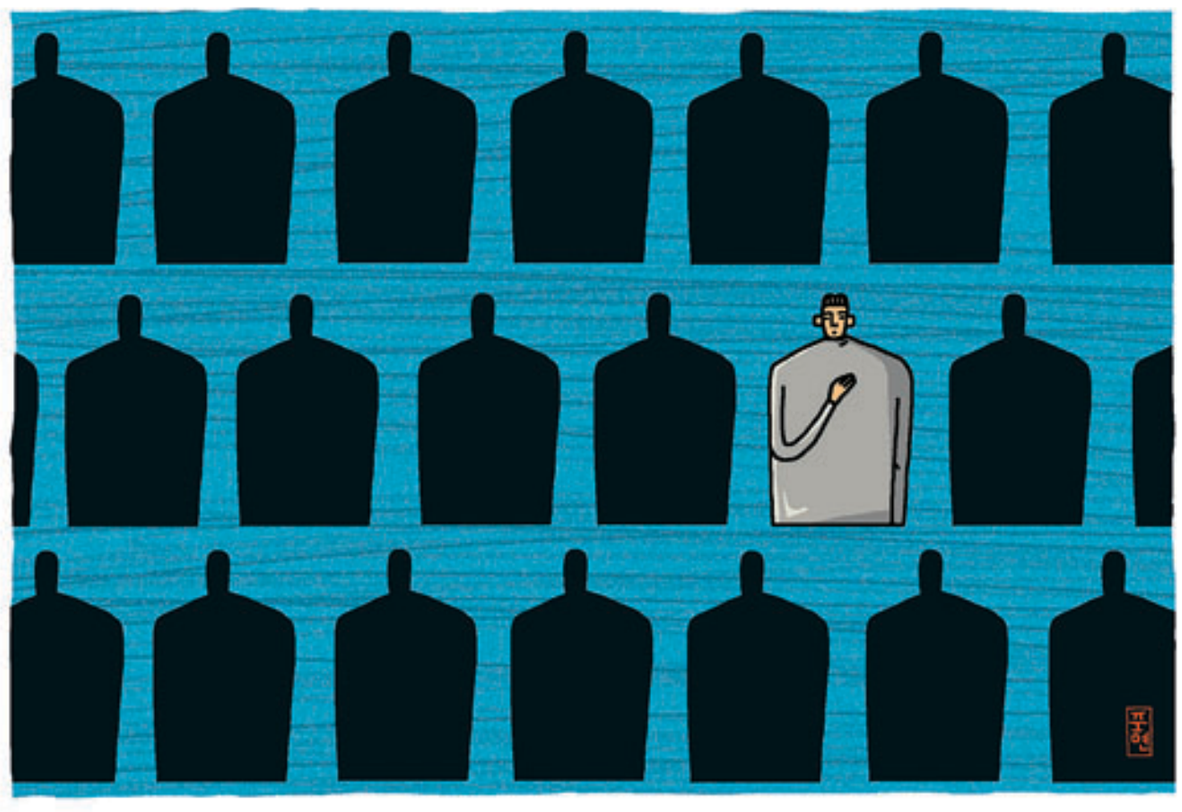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연 스님의 '青春 사이다'

⑫ 시험서 배우는 인생 전략

인생의 고득점, 八正道 수행으로

얼마 전 수능시험이 있었다. 수능시험은 수험생 뿐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이 신경을 쓰는 큰 시험이다. 시험의 결과와 관계없이 고생한 모든 수험생들과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많은 걸 느끼게 된다. 시험이 단지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까. 시험장에서 우리의 삶이 겹쳐서 보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한다. 늘 긴장의 연속이다. 그래서인지 한 번의 시험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으로 느껴 질 때가 많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첫째는 '힘 빼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긴장감을 풀기 위한 방법이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선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본래 실력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는 문제는 모두 풀 수 있어야 한다. 긴장을 하게 되면 아는 문제도 틀린다.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힘을 빼고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챙김(Mindfulness)이 된다. 마음챙김이란, 현대화된 불교 수행법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말로 알아차림(Awareness)이라고도 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볼 수 있다면 평소의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때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인다. 우리의 삶에서도 시험장에서 처럼 괜히 긴장이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으로 긴장감을 풀고 현재의 나로 돌아오면 좋겠다. 내가 가진 역량을 모두 발휘 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다.

둘째는 '선택과 집중'이다. 시험 중에 시간이 모자라면 참으로 난감하다. 시간이 모자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잘 모르는 어려운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시험을 볼 때에도 쉬운 문제는 그때 그때 풀어야 한다.

2점 또는 3점 문제는 비교적 쉽다. 그래서 쉬운 문제 위주로 풀어야 한다. 반드시 100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70~80점은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꼭 다 맞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4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시간이 모자라서 나머지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된다.

우리도 삶 가운데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마음이 우울해 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짜증과 화가 날 때도 있다. 내가 당처한 문제의 난이도는 아직 모른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다. 대부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방법을 찾으면 웬만해서는 해결이 된다. 많은 경우, 어렵지 않은 2~3점짜리 문제라는 것이다.

> **힘 빼고 바라보고, 선택과 집중을**
>
> **인생이란 기나긴 시험도 마찬가지**
>
> **마주한 문제 피하지 말고 바라보길**
>
> **그것만으로도 반 이상 해결돼 있다**

대부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잠재력이며 마음챙김의 능력이다. 만일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너무 괴로워 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기길 바란다.

4점짜리 고난이도 문제에 헤매다 보면 2~3점 문제를 놓칠 수 있다. 눈 앞의 행복을 놓치고 어려운 행복에 도전하다 보면 현재의 행복을 흘려 보내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셋째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성적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큰 틀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한 번 더 도전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시험은 지금까지 나의 노력을 토대로 현재의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객관적으로 평가된 성적을 보고 스스로를 성찰해 보고 다음을 생각하면 된다. 고(Go)를 할지 스톱(Stop)을 할지는 자신의 선택의 몫이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에 맞았을 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많은 경우, 화살을 쏜 사람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좋든 싫든 일단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라는 세 가지의 독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지 치료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불교에서 탐욕의 치료제는 '계율(戒律)을 잘 지키는 것'이고, 성냄의 치료제는 '선정(禪定)에 드는 것'이며, 어리석음의 치료제는 '지혜(智慧)를 쓰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줄여서 계정혜(戒定慧)라 하며 다른 말로는 삼학도(三學道) 또는 8정도(八正道, 해탈 열반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 라고 한다.

이 과정이 바로 고득점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다. 긴장을 풀고 매 순간 깨어서 마음을 챙기고 현재의 문제를 알아차리면 기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운 문제는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인 계율과 선정과 지혜라는 삼학도를 닦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행과 고통을 야기하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주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피하지 말고 바라보자. 그것 만으로 반 이상이 이미 해결된 것이다. 〈끝〉







현대불교신문사 ☎02) 2004-8214

불기 2562 무술년 불교달력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주문하십시오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과 동시에 신속한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 2004-8214


야생화(小) / 행복한 세상(大, 小) / 선화의 향기(大, 小) / 선으로 가는 길(大, 小) / 천진불(大, 小)


달마도(大, 小) / 붓다의 향기(大, 小) / 산사의 향기(大, 小) / 암자에 길을 묻다(大, 小) / 관음도(大, 小) / 그리운 금수강산(大, 小) / 밝고 향기롭게(大, 小) / 부모은중경(大, 小)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 신문사]

반 야 용 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